

『종교와 문화』 제 4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233-295.

## 고대 이집트 신왕국 참회석비의 실명 모티프를 통해 모색하는 고대 이집트의 개인신심 가능성<sup>\*</sup>

유 성 환<sup>\*\*</sup>

- I. 서언
- II. 선행연구
- III. 고대 이집트의 개인신심
- IV. 실명·참회 봉헌석비의 음역 및 번역
- V. 실명·참회 봉헌석비의 문헌학적 분석
  - 1. 데이르 엘-메디나 봉헌석비의 기본 구조
  - 2. 데이르 엘-메디나 봉헌석비에 언급된 신들
  - 3. 안질환에 의한 실명
  - 4. 종교적 체험 혹은 상징으로서의 실명
  - 5. 고대 이집트에서의 죄와 참회
- VI. 결론

### I. 서언

고대 이집트의 종교 환경에서 개인신심(*persönliche Frömmigkeit*)<sup>○</sup>란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최고위 신관·신전의례 수행자의 역할을 겸임했던 왕이

\* 본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2020S1A5B5 A1608284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나 신관단 혹은 축제나 신탁과 같은 외연을 갖춘 공적 종교(*offizielle Religion*) 활동의 매개 없이 다신교 체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신을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신과 직접 소통하는 비중재성(*Unvermittelbarkeit*)을 특징으로 하는 종교 활동과 그에 의해 유발·고양되는 사적인 종교적 심성을 의미한다.<sup>1)</sup> 시기적으로 개인신심과 관련된 문헌학적 증거와 시각·조형 이미지는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견된다. 필자는 개인신심의 맥락 속에서도 신왕국 시대 중반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독특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초기 이집트 학자들은 신왕국 시대 왕실의 집단 묘역이었던 왕가의 계곡(*Valley of the Kings*)에서 왕묘를 제작했던 장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데이르 엘-메디나(*Deir el-Medina*)에서 발견된, 제 19 왕조(기원전 1295-1186년) 및 제 20 왕조(기원전 1186-1069년)에 조성 혹은 제작된 분묘와 봉헌석비의 텍스트, 그리고 각종 조형 이미지에서 개인신심의 단초를 발견했다. 여기서 개인신심의 단초는 신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신을 직접 마주하는 상황에서 절감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와 그에 뒤따를 수 있는 죄책감과 참회의 느낌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참회의 심성이 가장 절실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경우는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에 노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고에서는 이들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 언급되고 표상되는 어둠(*Dunkelheit*)과 실명(*Blindheit*)의 모티프를 통해 개인신심의 주요한 특징인 참회와 속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주목할 계획이다.

## II. 선행연구

1) Richard H. Wilkinson, *The Complete Gods and Goddesses of Ancient Egypt* (New York: Thames & Hudson, 2003), 46-51. 영어의 *piety* 및 독일어의 *Frömmigkeit* 등이 “경건함”·“신실함” 등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단어를 “신심”(信心)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현대의 개인적 종교활동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종교적 심성인 *faith* 및 *Glaube* “신앙”(信仰)과 구별하기 위한 취지이다.

20세기 초 아돌프 에르만(Adolf Erman: 1854-1937년)과 제임스 헨리 브리스티드(James Henry Breasted: 1865-1931년)에 의해 “개인신심”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처음 등장한 이래<sup>2)</sup> 개인신심은 특히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발견된 신왕국 시대 장인들의 석비를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1) 여타의 매개자를 배제한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확신 및 종교적 상호소통에 대한 강렬한 내면화 과정<sup>3)</sup>; (2) 신왕국 시대 들어 비로소 발전(혹은 발견)되기 시작한 새로운 종교행태<sup>4)</sup>; (3)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심성<sup>5)</sup> 등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헬무트 브루너(Hellmut Brunner: 1913-1997년)는 개인신심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아마르나 시대(Amarna Period)의 소위 “일신교 혁명,” 즉 종교를 독점하고자 했던 아멘호텝 4세/아肯아텐(Amenhotep IV/Akhenaten: 기원 전 1352-1336년)에 의해 강행된 아텐(Aten) 신의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숭배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후 앞으로 언젠가 왕이 다시 종교를 독점함으로써 신들로 향하는 통로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반동으로 생겨났다고 보았고,<sup>6)</sup> 얀 아스만(Jan Assmann: 1938년-현재)은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용 석비에 대한

- 
- 2) Adolf Erman, *Denksteine aus der thebanischen Gräberstadt* (Berlin: Sitzungsberichte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49, 1911), 1086; James Henry Breasted, *Development of Religion and Thought in Ancient Egypt*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12), 349.
- 3) Battiscombe Gunn, “The Religion of the Poor in Ancient Egyp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Vol. 3 (1916): 81-94; Hellmut Brunner, “Persönliche Frömmigkei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ed. Band IV, Wolfgang Helc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2), cols. 951-963; Jan Assmann, “Gottesbeherzigung ‘Persönliche Frömmigkeit’ als religiöse Strömung der Ramessidenzeit,” in *L’Impero Ramesside: Convegno Internazionale in onore di Sergio Donadoni*, Vicino Oriente, Quaderni 1, ed. I. Brancoli (Rome: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1997), 17-43; *The Mind of Egypt - History and Meaning in the Time of Pharaohs*, trans. Andrew Jenkin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229-231; Susanne Bickel, “Aspects et fonctions de la déification d’Amenhotep III,” *Bulletin de l’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orientale*, Vol. 102 (2002): 6.
- 4) Breasted, *Development of Religion and Thought in Ancient Egypt*, 349; Assmann, *The Mind of Egypt*, 229-231; Bickel, “Aspects et fonctions de la déification d’Amenhotep III,” 6.
- 5) Gunn, “The Religion of the Poor in Ancient Egypt,” 81-94.
- 6) Brunner, “Persönliche Frömmigkeit,” col. 951.

문헌학적 문석을 바탕으로 브루너의 아이디어를 계승·발전시켜 개인신심의 출현 배경이 아마르나 시대 이후의 정신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에서 기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신심의 구체적인 태도는 기성 종교를 지배하고 있던 신전과 신판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신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접근(Gottesnähe)에 있다고 주장했다.<sup>7)</sup>

한편 개인신심이 신왕국 시대 들어 발전하기 시작한 새로운 종교적 십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존 베인스(John Baines: 1946년-현재)는 개인신심이라는 종교적 십성이 신왕국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이집트 문헌 및 예술원리의 폐쇄성, 즉 테코룸(decorum)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왕국 시대에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기존의 학설에 이의를 제기 했으며<sup>8)</sup> 이를 계기로 학계에서는 개인신심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촉발되었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개인신심이 신왕국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며 일부 문헌적 증거도 존재하지만 개인신심이라는 종교적 십성이 특히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이후 봉헌석비 등을 통해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르나 시대의 정신적 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성 종교체제의 개입 없는 신심의 내재화에 더하여 어둠으로 상징되는 실명의 위기와 이에 대한 참회·속죄·용서 등과 같은 개념은 이집트가 북으로는 시리아-팔레스타인 대부분, 남으

7) Assmann, "State and Religion in the New Kingdom," 68-72;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trans. David Lorton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224-230.

8) 고대 이집트의 맥락에서 데코룸이란 공식적인 문서 혹은 조형예술에서 기록되거나 묘사될 수 있는 대상 및 주제와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상 및 주제를 구분하는 일종의 문화적·집단적 불문율로 정의될 수 있다. John Baines, "Practical Religion and Piety,"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Vol. 73 (1987): 79-98; "Society, Morality, and Religious Practice," in *Religion in Ancient Egypt: Gods, Myths and Personal Practice*, ed. Byron Shafer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123-200.

9) Elke Blumenthal, "Sinuhes persönliche Frömmigkeit," *Jerusalem Studies in Egyptology,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40, ed. Irene Shirun-Grumach (Wiesbaden: Harrssowitz Verlag, 1998), 213-231; Bickel, "Aspects et fonctions de la déification d'Amenhotep III," 6; Maria Michela Luiselli, "Religion und Literatur: Überlegungen zur Funktion der persönlichen Frömmigkeit in der Literatur des Mittleren und Neuen Reiches,"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Vol. 36 (2007): 157-182.

로는 누비아(Nubia)의 제 6 급류 지역까지 복속시키면서 대제국을 이룬 시기, 다시 말해 새로운 종교적 개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제국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내 학계 내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 전반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원전 텍스트의 엄밀한 문헌학적 분석과 텍스트의 의미를 보완해 줄 시각·조형 이미지에 대한 해석 또한 활발하게 전개된 바 없다. 고대 이집트의 개인신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특징이 많은 분야이나 해외 학계에서도 텍스트에서 언급되는 어둠과 실명의 종교적 의미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개인신심과 관련한 논의가 이집트 학계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10)</sup>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어둠과 실명을 통해 표현된 개인신심의 심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은 고대 서아시아 종교사에 대한 논의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 Adem Falkenstein, Wolfram von Sode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Die Bibliothek der alten Welt: Reihe der alte Orient (Zurich-Stuttgart: Artemis, 1953), 20-26; Leo Oppenheim,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201-206; Thorkild Jacobsen,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145-164; Rainer Albertz,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Regions-interner Pluralismus in Israel und Babylon*, Calwer Theologische Monographien: Reihe A, Bibelwissenschaft 9 (Stuttgart: Calwer Verlag, 1978), 159; Henry William Frederik Saggs, *The Encounter with the Divine in Mesopotamia and Israel*, Jordan Lectures in Comparative Religion 12 (London: University of London, Athlone Press, 1978), 71-76, 126-138, 169-175; Robert di Vito, *Studies in Third Millennium Sumerian and Akkad Personal Name: The Designation and Conception of the Personal Go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Press, 1993), 272-275; Giorgio Buccellati, "Ethics and Piety in the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s. III & IV, ed. Jack M. Sasson et al. (Peabody: Henderickson Publishers, 2006), 1685-1696; Glenn S. Holland, *Gods in the Desert: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Lahma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242-251; Daniel C. Snell,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27-28.

### III. 고대 이집트의 개인신심

고대 이집트의 창세신화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와 함께 그 구조와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는 우주적 질서인 *m³t* 마아트(ma'at)가 수립되었으며 우주의 창조 후 고착된 영구불변의 질서인 마아트를 유지하고 준수하는 데에는 창조주를 비롯한 모든 신들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의 구성원이 참여해야 했다. 특히 왕은 인간계에 속해 있으면서 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신전의 레나 축제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신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신전의례와 다양한 축제를 주관하는 것 역시 우주적 질서인 마아트를 유지하는 활동 중 하나였다. 이론적으로 신들과 왕(혹은 왕의 대리인인 고위 신관들) 사이의 교류에 있어 일반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혹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다. 요컨대 이들이 신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왕 혹은 사후 영생을 성취한 인간의 혼인 *3hj* 아크(akh) 등의 매개자를 통하여나 관람이 허용된 축제의 공개적 과정만을 지켜보는 군중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적어도 중왕국 시대(기원전 2055-1650년) 말기 이후로는 개인이 다른 매개 없이 신과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개인신심과 관련한 고고학적·문헌학적 증거는 주로 조형예술과 문헌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sup>11)</sup> 조형예술의 경우 주로 일반 개인에

11) 이외에도 신명(神名)이 포함된 이름을 통해서도 개인신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고왕국 시대 제 4 왕조 쿠푸(Khufu: 기원전 2589-2566년)와 같이 「*hwj-wj-DN*」 “~신께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예: *hwj-wj-hnmw* “크눔께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과 같은 형식의 이름은 고왕국 시대에 이미 발견된다. 이후 신명이 포함된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DN-msw*」 “~신의 자식,” 「*DN-htp.(w)*」 “~신께서 만족하시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Hermann Ranke, *Die ägyptischen Personennamen*, Vol. 2: EinleitungForm und Inhalt der Namen-Geschichte der Namen-Vergleiche mit andren Namen usw. (Glückstadt: Verlag von J. J. Augustin, 1952), 219-227. 한편 개인신앙이 확산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는 아마르나 시대 이후에는 「*sd-sw-DN*」 “~신께서 그를 구해주소서”라는 형식이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종교혁명 이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사회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Hermann Ranke, *Die ägyptischen Personennamen*, Vol. 1: Verzeichnis

의해 의뢰·제작된 장례·봉헌석비와 분묘의 벽화 및 부조에서 개인신심과 관련한 시각적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sup>12)</sup> 시기적으로 이들 조형예술의 발전단계를 고찰해 보면, 우선 고왕국 시대(기원전 2686-2125년)에는 일반 개인의 석비나 분묘의 벽화·부조 등에서 신의 형상이 전혀 묘사되지 않는데 이는 신들의 모습은 신들의 집단 혹은 신들이 왕과 함께 하는 장면만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당대의 데코룸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왕국 시대 초기의 장례석비의 경우, 상단에는 대개 양식화된 봉헌문이 새겨져 있으며 중간 및 하단에는 기준선(register)으로 구분된 공간에 석비의 주인 부부가 의자에 앉아 헌물탁자 앞에 놓인 다채로운 공물을 취하는 모습과 이들의 아들·딸이 부부를 대면하여 경의의 제스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다. 아울러 봉헌문에는 오시리스(Osiris)나 아누비스(Anubis)와 같이 장례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들이 언급되지만 이들의 형상은 조형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들 석비에 신(들)의 형상이 묘사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기원전 1985-1773년) 말기부터 제 13 왕조(기원전 1773-1650년) 이후이다.

der Namen (Glückstadt: Verlag von J. J. Augustin, 1935), 330-332.

- 12) 장례석비와 봉헌석비는 그 목적과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장례석비는 망자의 존재를 기억하고 망자가 내세에서도 음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주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례석비에는 통상 「봉헌의 성격-봉헌의 주체-공물 목록-봉헌의 대상」 순으로 구성된 봉헌사가 새겨졌다. 중왕국 시대 말기의 궁인 세네비(Senebi)의 장례석비는 그 전형적인 설례를 제시한다(Vienna 18, 8-12): *htp-dj-nswt / jsjr hnt(j) jmmtjw ntr Ⲉ nb 3bdw wp-wwt nb t3 dšr / dj.sn prt-hrw t hnqt k3w 3pdw šsr mnht ht nbt nrft wbt ddt pt qm3(t) t3 jmmt htp(j) Ⲉnht ntr jm htpw df3w t3w ndm n Ⲉnh / n k3 n rbt-nswt snbj m3c hrw ms.n nbt pr jwwj m3t hrw “망자들의 으뜸이자 위대한 신, 아비도스의 주이신 오시리스와 신성한 땅의 주이신 웹-웨아웨트의 왕실 공물, 이들이 뺑과 맥주, 가축과 새들, 아마포와 의복들 – 하늘이 주시고 땅이 만드시고 범람이 가져오고 신께서 취하시는 좋고 정결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 음성 봉헌물과 (각종) 공물과 음식과 달콤한 생명의 숨결을 왕의 지인이자 진실된 목소리, 주부이자 진실된 목소리 이우우이의 소생 세네비의 카를 위해 제공해 주시기를.” James P. Allen,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373. 반면, 봉헌석비는 질병·설명과 같은 삶의 위기에 대한 신의 개입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석비로서 그 형식과 내용은 각 석비마다 다르다. 봉헌석비에는 대개 기도문이 포함되는데 기도문의 전형적인 구조는 V.1. 참조.*

이 경우 석비 머리의 반원형 공간(lunette)에는 통상 *wdjt* “웨자트”(Wedjat) 혹은 “호루스의 회복된 눈”(Sound Eye of Horus)이 석비를 반분하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좌우 양편으로 대칭을 이루게 구성되었으며 그 아래 기준선에 석비의 주인이 선택한 신(들)이 배치되었다.<sup>13)</sup> 신(들)이 묘사된 공간 아래에는 중왕국 시대의 장례석비의 구성과 동일하나 신(들)의 공간과 개인들이 묘사된 공간은 여전히 텍스트에 의해 분리되었다. 이와 같은 구도는 신왕국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석비에 포함된 각각의 인물 위에는 웨자트가, 신(들)의 머리 위에는 날개 달린 태양원반이 각각 그려지거나 새겨졌는데<sup>14)</sup> 신과 일반인이 동일한 기준선 상의 공간에 새겨지는 경우 신은 오른쪽에 비석의 주인은 왼쪽에 각각 새겨졌으며 신의 머리 위에는 태양원반과 오른쪽 날개를, 비석의 주인 위에는 웨자트를 각각 배치함으로 두 공간의 성격을 구분했다.<sup>15)</sup> 결론적으로, 장례·봉헌석비에서의 데코룸의 변화를 근거로 할 때 고대 이집트에서의 개인신심의 시각적 표현은 중왕국 시대 말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신왕국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표현되기 시작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문헌학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개인신심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왕국 시대 서사문학의 걸작 중 하나인 『시누헤 이야기』(Tale of Sinuhe)에 등장하는 주인공 시누헤의 기도이다. 제 12 왕조 초기 왕위계승을 불확실성에 공포를 느껴 이집트를 탈출한 시누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현지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게 되지만 만년에 이르러 자신의 생애를 반성하고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린다. 시누헤의 기도는 신께 드리는 기도와 왕께 드리는 기도로

13) Gay Robins, *The Art of Ancient Egyp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118, fig. 130.

14) 신왕국 시대부터는 일반인의 관에도 애도와 부활의 여신인 이시스(Isis)와 네프티스(Nephthys)의 형상이 그려지거나 새겨졌으며 태양신의 신성한 왕권을 체현한 지상의 현인신(現人神)인 왕과 왕실 구성원의 모습이 귀족 묘지의 내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석비와 인물상을 조합한 새로운 형태의 좌상 혹은 입상이 등장했는데 인물상의 경우 대개는 무릎을 끓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석비 상부의 반원형 공간에는 신의 형상이 새겨졌다.

15) Gay Robins, *The Art of Ancient Egypt*, 144, fig. 165.

되어 있는데<sup>16)</sup> 이 중 신께 드리는 기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sup>17)</sup>

『시누해 이야기』 중 시누해의 기도(p.Berlin 3022, 156-164)

*ntr{w} nb ȝȝ wȝrt tȝ / <sup>(157)</sup> htp.k dj.k wȝ r hnw<sup>18)</sup>  
smwn.k r |<sup>(158)</sup> rdjt mȝj bw wrȝw jbȝ jm  
<sup>(159)</sup> ptr wrt r ȝbt hȝtȝ m tȝ ms.k |<sup>(160)</sup> wȝ jmȝf  
mj-m-sȝ pw hpr zp nfr / dj nȝ |<sup>(161)</sup> ntr htp  
jrr.f mj ht r smnh pȝwȝ n sfn.nf |<sup>(162)</sup> jb.f mr.(w) n dqr.nf r ȝnb hr bȝst  
jn mȝn |<sup>(163)</sup> r.f ntt htp.(w) / sdm.f nh n wȝ  
wdb.f |<sup>(164)</sup> r hwn.f tȝ jmȝf r bw jn.nf sw jm*

이 도주를 결정하신 신이 누구이시든, 용서하시고 저를 내지内地[이집트]로 보내 주소서. 어찌면 그대가 제 심장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겠지요. 그대가 저를 낳으신 땅에 제 시신이 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도와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저에게 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고난을 주시어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자[시누해]를 위해, 사막에서 살게 만들었던 자[시누해]를 위해 그 끝이 좋을 수 있도록 부디 행하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 그가 용서하셨다는 뜻이라면 멀리 있는 자[시누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다랐던 곳에서 그[신]가 그[시누해]를 테리고 나온 곳으로 팔을 구부리소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시누해의 기도는 신왕국 시대 이전의 개인신심 사례를 시사하는 흥미로운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왕실 혹은 신전의 매개

- 
- 16) 왕은 지상에 현현한 태양신-창조주의 대리자이므로 신(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누해 이야기』에서 신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집트로의 귀환인, 왕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집트에서 맞이하게 될 영생이 각각 강조된다.
- 17) 해당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며 따라서 음역 및 번역에서의 오류는 필자의 전적으로 책임이다. 음역된 텍스트의 형식과 관련하여, 원문의 행이 나뉘는 곳은 수직선(|<sup>(n)</sup>)으로, 문장이 나뉘는 곳은 사선(/)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 18) 156행의 명사구 *ntr{w} nb*에서는 호격 명사가 *ntrw* “신들”로 표기되었으나 기도문 전반에 걸쳐 계속 단수로 언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표기에 사용된 복수 삼중선(Gardiner, 1957: 535, Z2)은 오류로 판단된다.

없이 신과 직접 접촉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시누해의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추정 역시 가능하다.) 여기서 기도의 대상은 *ntr{w} nb šš w'rt tn* “이 도주를 결정하신 신”(156행), 다시 말해 국외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만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신이며 이와 같은 운명을 신의 정별로 여긴 시누해는 이 신에 대해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데리고 나온 곳” = 본국으로 \**wdb* ‘‘팔을 구부리기’’를, 즉 인도해 주기를 기도한다(164행).<sup>19)</sup>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신의 정별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탄원한다는 점은 이후 살펴볼 실명·참회 봉헌석비에서의 기도와 같지만 이들 석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죄의 고백 및 참회·회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시누해 이야기』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 초기 개인신심의 종교적 심성은 석편·도편에 신의 이름과 신격을 써서 해당 신의 축제 행렬이 이루어지는 곳에 묻는다거나 공적·사적 서신의 서두에 발신자와 수신자에게 각별한 신(들)의 가호를 비는 전통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20)</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신심과 관련된 고고학적·문헌학적 증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신왕국 시대부터이다. 이 때부터는 개인신심이 개인적 승배의 대상이 될 신을 선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고착되는데 이런 과정은 \**rdj dN m jb* “~신을 (신자의) 심장에 두기”(placing god into one's heart) 혹은 \**jrq hr mw + DN*

19) 해당 표현의 관용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lan H. Gardiner, *Notes on the Story of Sinuhe* (Paris: Librairie Honoré Champion, 1916), p. 61.

20) 예를 들어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에 조성된 센와세레트 2세(Senwosret II: 기원전 1877-1870년)의 페라미드에 인접한 위성도시인 엘-라ahun(El Lahun)에서 발견된 네니(Neni)라는 하급 관리의 서신에서 네니는 자신의 상관인 이이-입(Iy-ib)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례적 축복을 보낸다(*p.Kahun II = Lesestücke I*, 19B, 2,2-3): *swd3-jb pw n nb.j nh.(w)-(w)d3.(w)-s(nb.w) r-ntt h3w nb n bj nh.(w)-(w)d3.(w)-s(nb.w) / qd.w wd3.(w) m st.sn nbt / m hzt nt spdw nb j3btt hm psdt.f ntrwnbw mj mrr b3k jm* “이것은 (현재의) 제 주 – 장수변영강성하소서 – 께 보내는 서신입니다. 제 주 – 장수변영·강성하소서 – 와 관련된 모든 것은 소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동방의 주 소피두와 그의 9주신 그리고 모든 신들의 축복 하에 제 자리에서 안전하고 무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소피두(Sopidu)는 큰 개자리(Canis Major)의 알파성인 시리우스(Sirius) 혹은 천랑성(天狼星)으로 매년 7월 14일경 태양이 뜨기 직전에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는 단출(旦出) 현상(heliacal rising)을 통해 나일강의 범람을 알리는 별이다.

“신의 물 위에서 행하기”(acting on his/her water), 즉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 충직하게 행하기” 등으로 표현되었다.<sup>21)</sup> 얀 아스만은 이와 같은 과정을 마아트, 즉 공동체의 의지를 신의 의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22)</sup> 요컨대, 개인신심 이전의 경우, 개인의 운명은 그(녀)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신과 왕에 의해 하향적으로 부과되는 우주적·사회적 질서인 마아트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부나 명성 같은 사회적 성공은 그 결과 자동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다.<sup>23)</sup> 그러나 개인신심이 정착된 이후부터 다른 매개 없이 *b3k-nb* “종-주인” 혹은 *z3-jt(j)* “아들-아버지”와 같은 명목적인 관계를 통해 신과 일대일로 대면하게 된 개인에게 신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신심의 숭배 대상이 되는 선택된 신은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그(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징벌을 내리는 존재가 되었으며 질병, 특히 (일시적인) 설명과 같이 신적인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는 우연히 찾아온

21) Jan Assmann, “Ocular Desire in a Time of Darkness. Urban Festivals and Divine Visibility in Ancient Egypt,” in *Ocular Desire: Sehnsucht des Auges*, Yearbook for Religious Anthropology, ed. Aharon R. E. Agus, Jan Assmann (Berlin: Akademie Verlag, 1994), 23. 『구약성서』『예레미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31:33): “그 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맷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그 마음에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차이점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와 같은 관계는 개인과 신(들) 사이에 성립되는 반면, 성서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집단=민족과 신 사이에서 수립된다는 점이다.

22) Jan Assmann, “State and Religion in the New Kingdom,” in *Religion and Philosophy in Ancient Egypt*, Yale Egyptological Studies 3, ed. William Kelly Simpson (New Haven: The Yal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9), 72-74.

23) 개인신앙 이전 시기에서의 이와 같은 심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문학장르는 교훈서 (instruction)이다. 이를 작품 중 하나인 『프타호텝의 교훈서』(Instructions of Ptahhotep)에서 프타호텝은 마아트를 준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p.Prisse, 88-91; 6,3-7): <sup>(88)</sup> *wr m3't w3ḥ spdt.(s) / (89) nj hn.n.t(w).s dr rk jsjrt / (90) jw hsf.tw n sw3 hr hpw / (91) sw3t pw m hr n 'wnt-jb* “마아트는 위대하고 그 예리함은 영속하니, 오시리스의 시간 아래로 흐트러진 적이 없음이라. 범도를 위배하는 자는 처벌받으리니, 그것[마아트]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바로 탐욕스러운 자의 의도 때문이라.” 여기서 “*wnjb* “탐욕스러운 자의 의도”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91행) 그에 따른 처벌은 공동체 혹은 정부에 의한 처벌 혹은 자신의 탐욕에 따른 자연스러운 몰락을 의미한다.

비인격적인 불행이 아니라 참회 당사자의 실수·범죄·악행으로 초래된 신의 정별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개인신심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행위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데쉬 전투(Battle of Qadesh: 기원전 1275년)에 참전한 람세스 2세(Ramesses II: 기원전 1279-1213년)가 아문(Amun) 신에게 제기한 개인적 항의이다. 서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였던 팔레스타인 북부를 두고 신흥 강국 히타이트와 대립하던 람세스 2세는 마침내 히타이트의 무와탈리 2세(Muwatalli II: 기원전 1295-1272년경)와 카데쉬에서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히타이트 진영의 기만작전에 말려들어 자신이 지휘하는 이집트 부대 중 일부가 적군에 의해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만다.<sup>24)</sup> 이때 람세스 2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여과 없이 표출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본국에 있는 *jt(j).j jmn* “나의 아버지 아문”에게 올린다.

『카데쉬 전투시가』(KRI II, 32, §§88-100, §§110-112)

(88) *jw bn srj hn̄c j / jw bn kd̄n //* (89) *bn ՚w̄ n m̄s̄ / bn qr̄w*

(90) *p̄y.j m̄s̄ p̄y.j nt-htrj m mrqht hr-hbt.sn //* (91) *nj smn.n w̄ jm.sn r ՚h̄b hn̄.sn*

(92) *՚h̄c dd.n hm.f / jh r.k tr jt(j).j jmn //* (93) *js p̄j n jt(j) hm hr z3.f*

(94) *hr n̄3 jr.j hn̄w m hmt.k //* (95) *js bn ՚sm.n.j ՚h̄c.n.j hr r.k / bw th3.j hr wd.n.k*

(96) *՚3wj sw nb ՚ n kmt / r djt h̄m h̄bstjw m-r w̄3t.f //* (97) *jh hr jb.k nn ՚3mw jmn / hzy hm̄w ntr*

(98) *js bn jr.j n.k mnw ՚3w wrt //* (99) *m̄h.j ՚By.k hwt-ntr m n̄3y.j h̄3qw*

(100) *qd.j n.k hwt nt hh m rnpwt / dj.j n.k ht.j nb m jm(j)-pr ... ...*

(110) *՚x.n.j n.k (j)t(j).j jmn //* (111) *jw.j m jb-jb ՚3t nj rb.j st*

(112) *h̄3swt nbt dmd.sn r.j / jw.j w̄.kw hr(j)-tp.j nj ky hm̄c j ... ...*

그 어떤 장교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전차병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군대의 그 어떤 군인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방폐병도 없었습니다. 제 보병대과 제 전차부대는 그들 앞에 굴복(?)했으며, 그들 중 그 누구도 그들과 싸우려고 할 만큼

24) Kenneth A. Kitchen, *Pharaoh Triumphant: The Life and Times of Ramesses II* (Warminster: Aris & Phillips, 1982), 53-64.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폐하[람세스 2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문이시여? 아버지가 아들을 모른 체 하는 것이옵니까? 제가 행했던 것들이 당신께서 무시하셔야 될 일이옵니까? 당신의 말에 따라 제가 가고 서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제가 위배했습니까? 검은 땅[이집트]의 주는 이방인이 그의 길을 밟게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아시아인들이 그대의 심장에 무엇이옵니까, 아문이시여, 신을 모르는 비참한 자들이? 제가 그대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기념물을 세우고 제 전리품으로 그대의 신전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대를 위하여 백만 년의 저택[장제전]을 건립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 …

저는 그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문이시여. 저는 제가 모르는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온 이방이 저를 대적하니 저는 그 누구도 곁에 없이 홀로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람세스 2세가 아문을 위해 자신이 행한 모든 업적을 열거할 때 이것을 신-왕(god-king) 파라오가 신성한 중간자(divine mediator)로서<sup>25)</sup>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아문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문에게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왕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하여 신전의례나 축제 등과 같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신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생명·권세·안정·행복·긴 통치기간 등과 같은 선물을 왕을 통해 이집트 전체에 선물한다. 그러나 이 전쟁서사에서의 아문-왕 간의 관계는 그보다 개인적인 아버지-아들 간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고 여기서 아무런 잘못 없이 고

25) 고대 이집트의 왕은 신들의 일원으로서 궁극적으로, 즉 사후 천상계에 속하는 동시에 지상에서 태양신의 통치행위를 대리하는 신성한 중간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인 파라오가 보유했던 반인반신의 특성은 *ntr nfr* “젊은 신”(young god)이라는 호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호칭은 당대에 재위 중인 (살아 있는) 왕의 왕명 앞뒤에 붙여졌다. “젊은 신”은 아직 천상계에 진입하여 완전한 신이 되지 못한 지상의 신-왕, 요컨대 다른 큰 신들에 비해 신격이 아직은 낫은 신(young god > junior god)을 의미한다. 반면, 왕이 사망한 후 적절한 장례절차를 거쳐 명계에서 완전한 생명을 부여 받으면 다른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처럼 서거한 전대의 왕은 *ntr* 3 “위대한 신”(great god > senior god)이라는 호칭을 부여 받았다. Allen, *Middle Egyptian*, 83.

난을 받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항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의 응답 역시 매우 개인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KRI II*, 32, §§124-126): *djf n.j drt.f hn̄.j / tw.j h̄.kw // ՚s.n.f (n.j) b̄.j(m) hr-hr n hr.k // tw.j hn̄.k / jnk jt(j).k / drt.j m-dj.k* “그[아문]가 짐에게 그의 손을 주셨고 짐은 고무되었다. 그는 짐 뒤에서 짐을 부르셨는데 그대[아문]의 얼굴과 짐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너의 아비이니 내 손이 너에게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파악된 개인신심의 통시적 경향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데이르 엘-메디나라는 한정된 공간과 실명·참회 봉헌석비라는 한정된 장르에 집중하여 개인신심의 한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V. 실명·참회 봉헌석비의 음역 및 번역

개인신심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 자료 중 실명이라는 사건과, 이를 신의 징벌로 보고 그에 따른 참회를 고백 혹은 암시하는 양식으로 구성된 신왕국 시대의 봉헌석비들 중에서 본 논고의 연구범위와 목적에 따라 분석·고찰의 대상이 되는 석비 및 여타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 (1) 테베 분묘 139번 「파와의 낙서」(Graffito Pawah in TT 139)
- (2) 「뱅크스 석비 6번」(Stela Bankes No. 6: *KRI I*, 413)
- (3) 「영국박물관 석비 374번」(Stela British Museum AE 374: *KRI V*, 645)
-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Stela British Museum AE 589: *KRI III*, 771-772)
- (5)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46번」(Stela Turin 50046: *KRI III*, 668-669)
- (6)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0번」(Stela Turin 50050: *KRI IV*, 338)
- (7)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1번」(Stela Turin 50051: *KRI I*, 373-374)
- (8)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2번」(Stela Turin 50052: *KRI I*, 390)
-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Stela Turin 50050: *KRI III*, 772-773)

상기 석비 및 낙서는 대부분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발견된 것이며 시기 역시 신왕국 시대 후반기에 해당하는 제 18 왕조(기원전 1550-1295년) 말기, 그리고 제 19 왕조 및 제 20 왕조에 작성되었다. 이들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과 문현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테베 분묘 139번(TT 139) 「파와의 낙서」 (본문 중 1-9; 18-20; 26-28행)

(<sup>1</sup>) *rdjt dw<sup>3</sup> n (jmn sn t<sup>3</sup> n wnn-nfr)| / (<sup>2</sup>) jn w<sup>6</sup>b zh<sup>3</sup>w hpt ntr(t) n (jmn m hwt (n<sup>h</sup>-hpwrw-r<sup>7</sup>)| (<sup>3</sup>) m w<sup>3</sup>st p<sup>3</sup>-w<sup>3</sup>h ms n jt(j)-snb dd.f  
(<sup>4</sup>) jb.j r m<sup>3</sup>.k nb šw<sup>3</sup>b / b<sup>3</sup>w (<sup>5</sup>) m<sup>3</sup>hw.k m<sup>3</sup>hy(t) / dd.k s<sup>3</sup>w bw (<sup>6</sup>) wnmmt / dj.k thjj {r} bw swrj / (<sup>7</sup>) jb.j r m<sup>3</sup> n.k / r<sup>3</sup>j jb.j jmn p<sup>3</sup> (<sup>8</sup>) h<sup>3</sup>rwjt n nm<sup>3</sup>h / ntk p<sup>3</sup> jt(j) n (<sup>9</sup>) jwjt njwt / p<sup>3</sup> h<sup>3</sup>j n t<sup>3</sup> b<sup>3</sup>[rt] ... ... ... (<sup>18</sup>) dj.k ptr.j kk<sup>3</sup>w [<sup>19</sup>] [m hrw]  
n dd.j.k / shd n.j / m<sup>3</sup>.j(t) t{w} / w<sup>3</sup>h k<sup>3</sup>.k / w<sup>3</sup>h p<sup>3</sup>y.k hr nfr mrj / jw.k r jj(t)  
m w<sup>3</sup>wj / (<sup>20</sup>) dj.k ptr tw / b<sup>3</sup>k jm zh<sup>3</sup>w p<sup>3</sup>-w<sup>3</sup>h jm ... ... ... (<sup>26</sup>) n k<sup>3</sup> n (<sup>27</sup>) w<sup>6</sup>b  
zh<sup>3</sup>w hwt-ntr n (jmn m t<sup>3</sup> hwt (n<sup>h</sup>-hpwrw-[r<sup>7</sup>])| (<sup>28</sup>) p<sup>3</sup>-w<sup>3</sup>h ms n jt(j)-snb*

아문을 찬양하고 웬네페르를 위해 땅에 입맞춤. 테베의 앙크캐페루레 영지(領地)  
의 아문을 위한 신성한 공물 담당 정결신관이자 서기관, 이티세넴의 아들 파와 올림.

제 심장은 그대의 목이 북풍을 취할 때 폐르새아 나무의 주이신 그대를 보고자 합니다. 그대는 먹지 않고도 배부르게 하시고 마시지 않고도 취하게 하십니다. 제 심장은 그대를 보고자 하오니 그리하면 제 심장이 기쁘겠습니다, 빙자/고아의 수호자(?)이신 아문이시여. 그대는 어미가 없는 이에게 어머니이시요, 과부에게는 남편이 시옵니다.<sup>26)</sup> ... ... 그대는 그대가 집행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낮에도]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밝하시어 제가 그대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대의 카가 영속하고

26) 이와 같은 묘사는 중왕국 시대의 교훈서 중 서사문학의 형식으로 작성된『언변 좋은 농부』(Eloquent Peasant)에서 평민인 농부가 상급관리에게 들어놓는 찬사와 유사하다 (p.Amherst 1/p.Berlin 3023, 93-95 = p.Ramesseum A (p.Berlin 10499) rt. 15,3-5): *hr ntt ntk jt(j) n nm<sup>3</sup>h / (<sup>94</sup>) h<sup>3</sup>j n b<sup>3</sup>rt / sn n w<sup>6</sup>t / šndyt | (<sup>95</sup>) nt jwjt(j) njwt,f jmj jry,j rn.k m<sup>3</sup> pn r hp nb nfr / ss̄m šw m ḫn-jb / wr šw m ndyt “이”는 나으리께서 고아에게는 아버지요, 과부에게는 남편이며, 이흔한 여인에게는 형제요, 어미가 없는 이에게는 요의(loomcloth)이시기 때문이옵니다.” 이를 통해 개인신앙에서의 아문이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마아트의 수호자로서의 관리와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대의 아름답고 사랑 받는 얼굴이 영속하는 한 그대는 먼 곳에서 오셔서 소인 서기관  
파와로 하여금 그대를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 ...

앙크캐페루레 영지의 아문 신전의 정결신관이자 서기관, 이티세냅의 아들 파와의  
카를 위하여.

「파와의 낙서」는 테베 분묘 139번(TT 139)으로 불리는 페레(Pere)의 분묘 내실에 파와(Pawah)의 형제인 바차이(Batjay)가 성각문자의 훌륭체인 신관문자(hieratic)로 남긴 낙서이다. 분묘가 조성된 것은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아멘호텝 3세(Amenhotep III: 기원전 1390-1352년) 치세이지만 텍스트 초반부에 이 텍스트가 네페르네페루레(Neferneferure), 즉 아마르나 시대 직후인 스멘크카레(Smenkhkare: 기원전 1338-1336년) 치세 3년경에 쓰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둠 혹은 실명과 관련한 모티프가 - 개인신심과 마찬가지로 - 소위 “일신교 혁명” 이 실패로 끝나면서 종교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던 아마르나 시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 (2) 「뱅크스 석비 6번」

(<sup>1</sup>) [rdjt j<sup>3</sup>wf] n j<sup>6</sup>h-d<sup>1</sup>hw<sup>2</sup>tj n<sup>3</sup>tr {<sup>3</sup>} nfr sdm nhw / (<sup>2</sup>) sn t<sup>3</sup> p<sup>3</sup> šw n<sup>3</sup>tr c<sup>3</sup> / htp / dj.k m<sup>3</sup>j j<sup>3</sup>k<sup>3</sup>w m hrw hr n<sup>3</sup> mdwt hjmwt / (<sup>4</sup>) htp n.j / m<sup>3</sup>j htp.tn

(<sup>5</sup>) jn nbt-pr |(<sup>6</sup>) jjt-<sup>(7)</sup>-nfr.ij |(<sup>8</sup>) m<sup>3</sup>r(t) hrw

위대한 신,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한] 신 이아흐-토트를 찬양하고 위대한 신 파-슈를 위해 땅에 입맞춤. 용서하소서. 여인들의 언사로 인해 그대들은 저로 하여금 낮에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그대들의 자애로움을 보게 하소서.

안주인이자 진실 된 목소리 이이트-네페르티 올림.

이 석비는 제 19 왕조의 세티 1세(Sety I: 기원전 1294-1279년)와 그의 아들 람세스 2세 치세에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장인으로 활동했던 센네젬(Sennedjem)의 아내 이이트-네페르티(Iyt-neferty)의 것이다.

(3) 「영국박물관 석비 374번」(아멘나크트의 앞과 위에 새겨진 텍스트 1-5행)

<sup>(1)</sup> *j3wt n k3.t mrt-sgr hnwt jmnn |<sup>(2)</sup> jn z**h3w** n st m<sup>3</sup>t jmnn-nht m<sup>3</sup> hrw  
dd.f: |<sup>(3)</sup> j3wt m htp t3 nbt jmnn *hnwt* ‘n |<sup>(4)</sup> st r htp  
dj.t m3j kkw m |<sup>(5)</sup> hrw / sdd.j b3w.t n kjwj / htp nj m htp.t*

메레트세게르, 서방의 여주, 그대의 카를 찬양함. 왕실묘역 서기관이자 진실된 목소리 아멘나크트 올림. 그가 말하기를: 평화 속에서 찬양 받으소서, 서방의 여주여, 자애롭게 변하시는 분이시여. 그대는 저로 하여금 낮에도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의 권능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대의 자애로우심으로 제게 자비를 베풀소서.

이 석비는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치세에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활동했던 장인 아멘나크트(Amennakht)의 것으로 데이르 엘-메디나의 수호여신인 메레트세게르(Meretsegeret)에게 봉헌되었다. 석비 상단에는 총 7행의 텍스트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아멘나크트가 메레트세게르 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경배 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석비의 두 인물 모두 눈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설명을 주제로 한 문서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반영한 의도된 조치로 보인다(그림 1).<sup>27)</sup>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본문 1-10행)

<sup>(1)</sup> *h3t m sddwt b3w n pth rsj-jnb.f jn sdm-‘s m st-m<sup>3</sup>t hr jmnn w3st |<sup>(2)</sup> nfr-‘bw  
m<sup>3</sup>-hrw dd.f: / jnk z(j) ‘rwy m ‘d3 n pth |<sup>(3)</sup> nb m<sup>3</sup>t / dj.f prt.(j) kkw m hrw*

27) The British Museum, (accessed October 31, 2021),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Y\\_EA374](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Y_EA374). 이는 또한 설명이 일식과 같은 천체현상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고에서는 “어둠”을 일식으로 보는 가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한 가설은 다음 참조: David G. Smith, “Deep Solar Eclipses in Ancient Egypt – A New Interpretation of Some New Kingdom Texts,” (Egyptomania: Egyptologists’ Electronic Forum’s Online Library, 2007), 1-23 (accessed on December 24, 2020): chrome-extension://efaidnbmnnibpcajpcglclefindmkaj/http://www.egyptomania.com/EEF/Blindness.pdf.

/ jw.j r dd b3w.f n hm |<sup>(4)</sup> sw rh sw n šrjw c3w / z3w.tn r pth nb m3t / mj.k  
 b(w) w3hf |<sup>(5)</sup> zp n r(m)t nb / hry.tn r dm rn n pth m c3b / mj.k dm |<sup>(6)</sup> sw m  
 c3b / mj.k whn.f / djf wnn.j mj jwfw n |<sup>(7)</sup> jwyt / jw.j m drt.f / djf ptr r(m)t ntrw  
 jm.j / jw.j |<sup>(8)</sup> mj z(j) jry.f bwt r nb.f / m3tj pth nb m3t jr.j / jr.n.f nj sb3y /  
 |<sup>(9)</sup> htp n.j / m33 n.j / htp.k jn sdm-c3s m st-m3t |<sup>(10)</sup> hr jmmt w3st nfr-c3bw m3t-hrw  
 hr ntr c3

테베 서부 왕실묘역 노무자 네페르아부가 작성한 프타, 그의 벽 남쪽에 거하시는 이의 권능에 대한 중언의 서두: 나는 마아트의 주 프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이다.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낮에도 어둠을 보게 하셨다. 나는 그분을 모르는 이들, 그분을 아는 이들,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 그분의 권능을 증언하겠다. 마아트의 주 프타를 외경하라. 보라, 그분은 그 어떤 악행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 프타의 이름을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보라, 그분을 거짓되게 말하는 이여, 보라 그는 고꾸라질 것이다. 그분[프타]께서는 내가 그의 손 안에 있을 때 나를 길거리의 개처럼 만드셨다. 그분은 내가 그의 주가 혐오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과 같았을 때 사람들과 신들이 나를 지켜보게 하셨다. 마아트의 주 프타께서 나를 계도하시려고 나에게 맞서실 때 그는 정의로우셨다.

제게 자비를 베풀소서. 저를 보시고 용서하소서! 위대한 신 앞의 진실한 목소리  
 테베 서부 왕실묘역 노무자 네페르아부 올림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은 데이르 엘-메디나의 장인 네페르아부(Neferabu)의 것으로 상단에는 관람자를 기준으로 윈幡에 멤피스(Memphis)의 주신이자 장인들의 수호신인 프타(Ptah)가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프타가 위치한 사당 지붕 위에는 기도·탄원 등을 주제로 하는 봉헌석비에서 자주 발견되는 msdr sdm “들어주시는 귀” 4개가 새겨져 있다. 하단에는 관람자를 기준으로 오른幡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네페르아부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그림 3). 이 기도문에서 네페르아부는 프타에게 테베의 주신 아문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탄원한다.

네페르아부는 람세스 2세 치세 후반에 활동했던 장인으로서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보유했다. 장인의 마을 외곽에 조성된 집단 묘역

에는 그의 분묘(TT 5)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대가족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을 비롯한 총 3개의 석비가 영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아래에 소개될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 역시 그의 것이다. 이들 두 석비는 본고를 통해 소개되는 봉현석비들 중 설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가장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46번」 (하단 1-7행)

(<sup>1</sup>) *rdjt j3wt n j3h dhwtj / sn.(j) t3 n p3 {n} htp.j*

*dj.j |<sup>(2)</sup> n.f j3wt r q3w n pt / sw3x.j nfrw.k htp.k nj / |<sup>(3)</sup> m33.j htp.k / prt.j 3w  
[htp].k / dj.k prt.j kk |<sup>(4)</sup> n jrr.k / shd nj / m33.(j) |<sup>(5)</sup> tw / p3 wn snb nh m  
drt.k / |<sup>(6)</sup> nh.tj m p3y.k dt.j.f |<sup>(7)</sup>*

*n k3 n [gnwtj] m st-m3t |<sup>(8)</sup> [n]r-rnpt m3c hrw nfr m htp |<sup>(9)</sup> snt.f mr.f nbt-pr  
hwjj-nfrt |<sup>(10)</sup> m3c(t) hrw n nb.s |<sup>(11)</sup> z3t.s wr-n-r*

이아흐-토트를 찬양함. 용서함으로 [아름다우신] 분께 저는 땅에 입 맞추고 하늘 높이 찬양 드리오며 그대의 완전함과 저에 대한 그대의 자애로움에 경배 드리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대의 자애로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대의 자애로움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행하심으로 제가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밝히시어 제가 그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는 건강과 생명이 그대의 손 안에 있고 그대가 주신 것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왕실묘역 조각가이자 진실 된 목소리, 평안을 얻은 이 네페르렌네페트의 카를 위하여, 그가 사랑하는 그의 누이이자 안주인, (그리고) 진실 된 목소리 후이네페레트 - 그리고 그녀의 딸 웨르엘 - 이 그녀의 주를 위하여.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46번」은 람세스 2세 치세 초기 데이르 앤-메디나의 장인으로 활동한 네페르렌네페트(Neferrenepet)가 지혜와 문자·치유의 신 토트(Thoth)에게 봉헌한 것이다. 석비의 상단에는 범선에 좌정한 토트에게 비비원숭이가 웨자트 혹은 호루스의 회복된 눈을 바치는 장면이, 하단에는 네페르렌네페트-후이네페레트 부부와 딸 웨르엘이 봉헌하는 모습이 각각 묘사되어 있다.

## (6)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0번」(본문 1-6행)

(<sup>1</sup>) *rdjt j3wt n [(j3h-ms nf3t-jrj)] ...] |<sup>(2)</sup> n hnwt p3 dmj [... ...] |<sup>(3)</sup> kkw n jrr. {s}*  
 (<sup>4</sup>) *shd jr3j / htp |<sup>(5)</sup> n.j / htp n k3 n nb(t)-pr jj |<sup>(6)</sup> m3(t) hrw*

성읍[데이르 엘-메디나]의 여주 아흐모세-네페르타리를 찬양함. [그녀는] 그녀의 행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두 눈을 밝히시고.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안주인이자 진실 된 목소리 이이의 카를 위하여.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0번」은 제 18 왕조 말기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헤리아(Heria)가 어머니를 위해 장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데이르 엘-메디나를 건립한 아멘호텝 1세(Amenhotep I: 기원전 1525-1504년)와 함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던 왕의 어머니 아흐모세-네페르타리(Ahmose Nefertari)에게 봉헌한 것이다. 석비 상단에는 관람자를 기준으로 왼편에 여왕이, 오른편에는 헤리아의 어머니 이이(Iy)가 여왕에게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각각 묘사되어 있다.

## (7)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1번」(하단 1-9행)

(<sup>1</sup>) *rdjt j3wt n skr / sn t3 n nb [...] ...] |<sup>(2)</sup> n.j p3 'n htp / mtw.k wn wr phjt  
 dj.k |<sup>(3)</sup> m3j kkw n jrr.k / htp n.j |<sup>(4)</sup> m3(j) tw n k3 n nbt-pr nbt-nht <m3t hrw>  
 |<sup>(5)</sup> z3.s nb-<sup>c</sup>n-sw |<sup>(6)</sup> m3c hrw |<sup>(7)</sup> z3t |<sup>(8)</sup> nbt-pt mrt-jmn |<sup>(9)</sup> m3(t) hrw*

[서방]의 주여 소카를 찬양하고 [...]의 주를 위해 땅에 입맞춤.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함으로 아름다우신, 그리고 권능으로 막강하신 이여. 그대는 그대의 행하심으로 저로 하여금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용서하시면 제가 그대를 보겠나이다.

안주인이자 [진실된 목소리] 네베트네헤트의 카를 위하여, 그녀의 아들이자 진실된 목소리 네브안수, 그녀의 딸이자 안주인, (그리고) 진실 된 목소리 메리트아문.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1번」은 이이네페르(Iy-nefer)의 아내 네베트네헤트(Nebetnehet)가 소카(Sokar)에게 봉헌한 것이다.

(8)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2번」

파이의 앞과 위에 새겨진 상단 텍스트 (1-6행)

(1) *šzp b(w) nfr nb ntrw hnsw nfr-htp /* (2) *dhwtj nb jwnw-šm<sup>c</sup> / hrw hrj m<sup>c</sup>b<sup>c</sup>y*

(3) *htp zp 2 p<sup>c</sup> n htp* (4) *mtw.k mr htpw* (5) *jn zh<sup>c</sup>w-qd(wt)* (6) *n jmn p<sup>c</sup>y m<sup>c</sup>-hrw*

좋은 것을 받으소서, 신들의 주 콘수 네페르호텝이시여, 남쪽의 헬리오플리스의 주이신 토크시여, 30의 법정을 주관하시는 호루스시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함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시여, 그리고 봉헌물을 흡향하소서. 아문의 윤곽선 소묘화 가이자 진실 된 목소리 파이 올림.

웨자트렌네페트의 앞과 위에 새겨진 하단 텍스트 (1-9행)

(1) *rdjt j<sup>c</sup>w n hnsw m w<sup>c</sup>st nfr-htp / hrw nb 3wt-jb*

(2) *dj<sup>c</sup>j n f<sup>c</sup>wt / shpj k<sup>c</sup>f htp.fnj r<sup>c</sup> nb / jn zh<sup>c</sup>w-qd(wt) n jmn p<sup>c</sup>y m<sup>c</sup>-hrw*

(3) *mj.k dj.k m<sup>c</sup>.j kk(w) n jrr.k / htp.k n.j / sdd(j)* (4) *sw / ndm.wj htp.k hnsw n nmjh* (5) *n njwt.k*

*n k<sup>c</sup> n nbt pr w<sup>c</sup>dt-rmpt / jn z3.s jr wd pn* (6) *hr rn n nb.f hnsw zh<sup>c</sup>w-qd(wt) p<sup>c</sup>y m<sup>c</sup>-hrw /* (7) *dd.f. / jm(j)* (8) *hr.k /* (9) *jr htp / sdm n.j jw.[j ...]*

테베의 콘수 네페르호텝, 행복의 주 호루스께 찬양 드리옵니다. 저는 그를 찬양하오니 제가 그의 카를 만족시키고 그가 제게 매일 만족하시도록. 보시옵소서, 그대는 저로 하여금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용서하시면 제가, “그대의 은총은, 콘수여, 그의 성읍에 사는 빈자/고아에게 얼마나 감미로운가”라고 말하겠나이다.

안주인이자 진실 된 목소리 웨자트렌네페트의 카를 위하여, 그의 주 콘수의 이름으로 이 석비를 제작한 그녀의 아들 아문의 윤곽선 소묘화가이자 진실된 목소리 파이, 그가 아뢰오니, “살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 때 제 말씀을 들으소서. ... ...

이 석비는 데이르 엘-메디나의 파이(Pai)가 자신의 어머니 웨자트렌네페트(Wadjetrenepet)를 위해 달의 신이자 치유의 신인 콘수(Khonsu)에게 봉헌한 것이다. 관람자를 기준으로 석비의 상단 왼편에는 콘수가, 오른편에는 파이가 묘사

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어머니 무릎을 끊고 앉아 있는 웨자트렌네페트의 참회와 기도가 새겨져 있다.<sup>28)</sup>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 (본문 1-17행)

(<sup>1</sup>) *djt j̄wt n dhn(t) jm̄ntt / sn t̄n k3.s / dj.j j̄wt sdm*  
*jnk |<sup>(2)</sup> <jr> (?) m̄t̄t hrj-tp t̄ / jr n sdm-̄s m st-m̄t̄t nfr-̄bw m̄t̄-hrw*  
*<jnk> (?) hm n jw̄j |<sup>(3)</sup> h̄bjj bw rh nfr r bjn / jw.j hr jrt p̄z zp n h̄bb |<sup>(4)</sup> r dhn(t)*  
*/ jw.s hr jr <t̄> n.j sb̄ / jw.j m drt.s |<sup>(5)</sup> m gr̄h mj hrw / jw.j h̄ms.k(w) hr dbt*  
*mj t̄ |<sup>(6)</sup> jw̄r / jw.j hr ̄s n t̄w nn jw.(f) n.j / jw.j |<sup>(7)</sup> q<n>b n t̄ dhn(t) jm̄ntt*  
*̄s p̄htj n ntr nb nt̄t nb<t̄> {hr}*  
*(8) ptr jw.j r dd n ̄s(w) ſrj(w) nt̄j m t̄ jst / s̄w |<sup>(9)</sup> t̄ r dhn(t) p̄z wn m̄j*  
*m-h̄nw.s / B |<sup>(10)</sup> dhn(t) h̄ws m h̄wtj m m̄j hs̄t |<sup>(11)</sup> jw.s m-s̄ th̄ r.s / jw.j*  
*hr ̄s n t̄yj |<sup>(12)</sup> h̄nwt / gm s(j) jj.tj n.j m t̄w ndm / jw.s hr |<sup>(13)</sup> h̄tp n.j / jw.*  
*dj.s{w} m̄s.{n}.j drt.s / jw.s ̄n |<sup>(14)</sup> n.j m h̄pj / jw.s hr dj sh̄m.j n{3} mrw |<sup>(15)</sup>*  
*wn m jb.j / <jst> t̄ dhn(t) jm̄ntt h̄tp.j / jw.tw |<sup>(16)</sup> hr ̄s n.s*  
*dd n nfr-̄bw dd.f / ptr sdm ms[d]rwj |<sup>(17)</sup> nb nt̄j ̄nh.(w) hrj-tp t̄ / s̄w t̄ dhn(t)*  
*jm̄ntt*

서쪽의 정상(頂上)[메레트세계르]을 찬양하고 그녀의 카를 위해 땅에 입맞춤. 제  
가 찬양 드리오니 들으소서. 저는 지상에서 마아트를 행하는(?) 사람이옵니다. 왕실  
묘역의 노무자이자 진실된 목소리 네페르아부의 작품.

[나는] 무지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심장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상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으며 내가 밤낮으로 여신의 손에 있을 때 여신께서는 나는 징벌  
하셨다. 나는 임산부와 같이 벽돌 위에 앉아 (생명의) 바람을 불렸으나 그것은 내게  
오지 않았다. 나는 권능으로 위대하신 이이신 서쪽의 정상과 모든 신과 모든 여신에  
게 복종하였다.

28) Gunn, "The Religion of the Poor in Ancient Egypt", 90; Tosi & Roccati, *Stele e altre Epigrafi di Deir El Medina n. 50001-50262* (Turino: Edizioni d'Arte Fratelli Pozzo, 1972), 87-88, 283; Jan Assmann, *Ägyptische Hymnen und Gebete*,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99), 379-381.

이제 보라, 나는 근무조의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정상을 경외하라,  
사자가 여신 안에 있으니 정상, (즉) 여신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뒤쫓을  
때에는 사자가 치는 것처럼 치시니라. 내가 나의 여주를 불렀을 때 여신께서는 달콤  
한 미풍과 함께 오셨다. 여신께서는 내로 하여금 그녀의 손[手]을 보게 한 후 나를  
용서하셨으니 여신께서는 내 마음에 있던 괴로움을 잊게 해주셨다. 이제 서쪽의  
정상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를 때 자애로우시니라.

네페르아부의 중언: 보라, (그리고) 땅 위의 살아 있는 모든 귀는 들으라. 서쪽의  
정상을 경외하라.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은 (5)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과 마찬가지로  
네페르아부가 제작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된 테이르 엘-메디나의 수호여신인 메  
레트세게르에게 봉헌된 것이다. (4) 「영국박물관 석비 374번」에서 온전한 여신  
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이 석비에서 관람자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위치한 여신은  
중앙에는 여인의 머리, 중앙의 머리를 기준으로 양쪽에는 뱀의 머리 2개가 달린  
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석비의 5-6행에서 *jwj hrms.k(w) hr dbt mj b jwr / jwj hr š n bw nn jw(f)*  
*nj* “임산부와 같이 벽돌 위에 앉아 (생명의) 바람을 그것은 내게 오지 않았다”는  
그의 처지가 벽돌 위에 끓어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분만 중의 임산부의 고난  
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이 생명의 바람은 오지  
않았으나 그가 용서받았을 때 12행에서처럼 \**s(j) jj.tj m bw ndm* “여신께서는  
달콤한 미풍과 함께 오셨다.”<sup>29)</sup> 한편 8행의 *3(w) šrj(w) ntj m b jst* “근무조의

29) 이 문장을 직역하면, *\*jwj hr gm s(j) jj.tj nj m bw ndm* “나는 그녀가 달콤한 미풍  
안에서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가 된다. 고대 이집트어 동사 *gnj* “발견하다”와 관련하여  
아스만은 이 동사가 본질적으로 “신성한 개입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의미하며  
개인신앙의 전형적 특징을 가장 명료하게 제시하는 “전문용어”(terminus technicus)로  
보았다. Jan Assmann, “Ocular Desire in a Time of Darkness. Urban Festivals and Divine  
Visibility in Ancient Egypt,” 15;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231-232. 그러나 이 단어는 테이르 엘-메디나의 참회  
봉헌석비 및 낙서 등에는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노인과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은 테이르 엘-메디나의 장인들이 왕묘의 건설작업에서 축을 기준으로 좌우 2조 나뉘어 근무할 때 이것을 배의 좌현과 우현에서 노를 젓는 승무원들과 비유하면서 파생된 표현이다.

끝으로 13행에서 네페르아부는 *jw djs{w} m3{n}.j drt.s* “그녀[메레트세게르]는 내가 그녀의 손을 보게 한” 후 용서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drt.s* “그녀의 손”은 여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메레트세게르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참회 당사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한 후 네페르아부를 용서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카데쉬 전투시가』에 서(KRI II, 32, §§124-126): *djf nj drtf hnčj / twj hč.kw // ... ... // ... ... drt.j m-dj.k* “그[아문]가 짐에게 그의 손을 주셨고 짐은 고무되었다. .... (아문이 말하기를) ‘내 손이 너에게 있다’라고 언급된 것처럼 “신의 손”이 신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은 고대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심성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람세스 2세 치세에 작성된 한 개인서신에서

30) 예를 들어, (6)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46번」의 주인은, *snb ḫnh m drt.k / ḫnh.tj m pšy.k džif* “건강과 생명이 그대[토트]의 손 안에 있고 그대가 주신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선언한다(5-6행).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네르갈의 손”이 역병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기원전 13세기의 외교 서신인 「아마르나 외교서신」 중 알라시아(Alashiya)의 왕이 파라오에게 보낸 서신(EA 35 = BM 29788)에서, *aš-šum ŠU-ti dMAŠ.MAŠ i-ba-aš-ši i-na KUR-ia* “내 나라가 네르갈의 손에 있으므로”라고 말한다(35-39행). William L. Moran, *The Amarna Letter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107-109. 아울러 간질과 관련한 바빌로니아의 접토편에서는 *sabāum* “쥐다” “쥐하다”에서 파생된 *sibtu* “간질”에 대하여 밤에 발생하는 간질을 *sibit etemmi* “유령에 의해 잡힘” 혹은 *qāt etemmi* “유령의 손”으로 보았다. J. V. Kinnier Wilson, Edward H. Reynolds, “Translation and Analysis of a Cuneiform Text Forming Part of a Babylonian Treatise on Epilepsy,” *Medical History*, Vol. 34 (1990): 187. 한편 기독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신의 손”과 관련된 언급은 다음과 같다: (1) “내 친구들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나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욥기』 19:21); (2) “그리고 하느님께서 유다 사람들은 감동시키셨으므로(직역하면, “하느님의 손이 유다 민족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합심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과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역대기하』 30:12); (3)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추격하는 자들에서 나를 구하소서” (『시편』 30:14-15); (4)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직역하면,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발신자는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기술한다(*p.Leiden I 369, rt. 5-6*):  
*y³ tw.j 'nh.(w) m p³ hrw / dw³ hr 'wj p³ ntr* “그래, 오늘 나는 살아 있다. (그러나)  
내일은 신의 손 안에 있다.” 여기서 \**hr 'wj DN* 혹은 \**m drt DN* “~신의 손 안에  
있다”는 표현은 참회 당사자가 철저하게 신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5)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에서 네페르아부가, *dj.f wnn.j mj*  
*jw.jw n jwyt / jw.j m drt.f* “그분[프타]서는 내가 그의 손 안에 있을 때 나를 길거리  
의 개처럼 만드셨다”고 언급한 부분(6행)은 당사자의 이와 같은 처지를 적확하  
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 V. 설명 · 참회 봉헌석비의 문헌학적 분석

### 1. 데이르 엘-메디나 봉헌석비의 기본 구조

데이르 엘-메디나 봉헌석비를 분석하면 이들 석비가 모두 유사한 순서와 문구  
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된 석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서두

석비의 주인이 봉헌의 대상이 되는 신을 찬양한다는 것이 선언된다. 이때 신

---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베드로전서』 5:6). 이슬람의 경전  
인 『꾸란』의 경우 신의 고유한 권능 및 권위와 관련하여 “신의 손” 언급된다. “성서의  
백성들은 알라의 은혜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손 안에만 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부여 하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주님이시  
라”(제 57 장 「하디드」 29절).

31) Irene Shirun-Grumach, “Bedeutet ‘in der Hand des Gottes’ Gottesfurcht?” in *Studies in Egyptology Presented to Miriam Lichtheim*, Vol. 2, ed. Sarah Israelit-Groll (Jerusalem: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0), 836-852.

의 이름과 함께 다양한 호칭이 열거된다. 찬양부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 핵심 표현으로 구성되는데 서사 부정사(narrative infinitive)로 이루어진 이들 표현은 다음과 같다.

- (가) \**djt j̄wt n DN* “~신에게 찬양을 드림,” 즉 “~신을 찬양함”
- (나) \**sn t̄ n DN* “~신을 위해 땅에 입맞춤”

두 표현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에서는 표제라 할 수 있는 *h̄t m sddwt* “증언의 서두”로, (8)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2번」의 상단에서는 역시 명령형 *szp b(w) nfr* “좋은 것을 받으소서”로 텍스트가 각각 시작된다.

## 2) 주체

서두에 이어 봉헌석비를 제작하고 봉헌하는 석비의 주인, 즉 참회 당사자가 언급되는데 이때 석비의 주인은 자신을 *gr* “침묵하는 자,” 즉 “조용히 신의 섭리를 따르는 자”로 표현하거나<sup>32)</sup>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사용한다.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석비 및 낙서에서도 (1) 테베 분묘 139번 「파와의 낙서」에서의 *mnhw* “빈자/고아”(8행); (8)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2번」에서의 *mnhw* “빈자/고아”;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에서의 *hm n jw̄tj h̄tj bw r̄h nfr r bjn*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심장이 없는 무지한 자”(2-3행)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보면 대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급료를

32) 앞서 언급된 『프타호텝의 교훈서』에서도 침묵, 즉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p.Prisse, 575-587; 17,4-9): (575) *jw wh̄j jw̄t(j) sdm.f /* (576) *mn jr nf ht nbt /* (577) *m̄.f r̄h m hm /* (578) *ȝht m mnt /* (579) *jrr.f hbdt nbt /* (580) *r iss.t(w) jm.f r̄c nb /* (581) *ȝnh.f m m(w)tt hr.s /* (582) *ȝw.f pw ȝbn dd /* (584) *bjt.f jm m r̄h n sr(j)w /* (585) *hr m(w)t ȝnh.(w) r̄c nb /* (586) *swȝ.t(w) hr zpwf /* (587) *m̄.c ȝȝ n jyt hr.f r̄c nb* “귀 기울일 줄 모르는 바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리라. 그는 맑을 무지로, 유용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니라. 그는 고야한 일만 저지르니 매일 질책 당하니라. 그는 죽음을 불러오는 것에 기대 살아가니 들어오는 것은 비난뿐이라. 날마다 산 송장이니 그의 행실은 관리들도 알고 있느니라. 그에게 매일 닥치는 수많은 불행으로 그의 행동은 잊혀지리라.”

받는 테이르 엘-메디나의 장인이거나 그의 가족이며 다른 석비의 주인들도 정결 신관·서기관으로 귀족 혹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앞서 언급된 표현들은 그들의 실제로 처한 사회적·종교적 상황을 언급 한 것이 아닌 종교적 겹양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9)번 텍스트에서 네페르아부는 스스로를 <jr> (?) *m³t hrj-tp b* “지상에서 마아트를 행하는(?) 사람”(1-2행)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석비에 묘사된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개인신심의 신실한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고백

석비의 주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언급한다. 대부분의 석비에서 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암시될 뿐인데 이를 석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 혹은 산 사람들의 출입이 허가된 분묘의 상부구조에 안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이를 텍스트 중에서 참회 당사자가 저지른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죄 소한으로 암시되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1. 석비에 언급 혹은 암시된 죄

텍스트	언급 혹은 암시된 죄
(2) 「뱅크스 석비 6번」	암시: <i>n³ mdwt hjmwt</i> “여인들의 언사”(3행)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	적시: 위증(2행·5-6행)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 번」	암시: <i>zp n h³b r dlym(t)</i> “정상을 거스르는 죄”(3-4행)

(2) 「뱅크스 석비 6번」에서 석비의 당사자는 자신의 죄가 *n³ mdwt hjmwt* “여인들의 언사”임을 암시하는데(3행) 이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혐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테이르 엘-메디나와 같이 많은 세대가 밀접해서 생활해야 했던 공동체에서 수다·한담 등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은 매

우 혼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2)번 텍스트의 당사자인 아이트-네페르티는 낮에 어둠을 보는 것이 이와 관련한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묘사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과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의 주인인 네페르아부이다. (4) 번 텍스트에서는 본인이, *‘rgy m ‘dB n pth* “프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 사람,” 즉 위증죄를 저질렀고, (9)번 텍스트에서는 정상, 즉 메레트세게르를 거스르는 죄를 저질렀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정상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 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4)번과 같이 위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 징벌

죄를 고백한 다음에는 그에 따른 신의 징벌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대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이며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석비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m33 kkw m hrw n jrr dN / n jr.n DN* “~신의 행하심으로 낮에도 어둠을 보는 것”이다.

#### 5) 응답

석비의 주인은 신에게 고백과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탄원하고 징벌이 철회될 이후의 정상적인 삶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이를 텍스트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통상 *htp* “용서하다” · *jr htp* “자비를 베풀다” 등으로 표현되며[(2) · (3) · (4) · (7) · (8) · (9)] 특별히 실명과 관련해서는 참회 당사자 혹은 그(녀)의 눈을 *sdh* “밝히다”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었다[(1) · (5) · (6)].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육체적 혹은 영적 개안(開眼)이며 따라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은 용서 혹은 밝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의 대상인 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울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 6) 약속

신에 대하여 참회 당사자를 용서하고 징벌을 철회하면 그(녀)는 신의 권능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기에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들, 즉 신 혹은 그(녀)의 권능을 모르거나 아는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뿐만 아니라 강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까지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르 엘-메디나 봉헌석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이들 텍스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요약·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서두: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위해 땅에 입맞춤.
- 주체: 어리석은 죄인/빈자/고아인 소속 직책 아무개
- 고백: 저는 (위증이나 모함 등) 신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 징벌: 저는 그대의 행하심으로 어둠을 보게 하셨습니다.
- 응답: 저를 용서하시어/저를 밝히시어 제가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약속: 그대의 권능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 2. 데이르 엘-메디나 봉헌석비에 언급된 신들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개인신심의 대상이 될 신을 선택할 때에는 관용적으로 *\*rdj dN m jb* “~신을 (신자의) 심장에 두기” 혹은 *\*jrj hr mw* “~신의 물위[영역]에서 행하기”의 과정을 거쳤다. 신왕국 시대 제작된 개인신심과 관련된 석비 혹은 낙서는 모두 테베 혹은 그 서안에 위치한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발견 출토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텍스트에 언급된 신들이 테베의 주신인 아문과 데이르 엘-메디나의 수호여신인 메레트세게르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개인신심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신들이 매우 다양한 신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 1) 국가신

테이르 엘-메디나의 석비 및 낙서에서 개인적인 숭배 대상으로 선택된 국가신으로는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에서 언급된 멤피스의 주신 프타와 (1) 테베 분묘 139번 「파와의 낙서」에서 언급된 테베의 주인 아문이 있다.

멤피스의 주신 프타는 조각가·건축가·금속 세공사 등과 같은 장인의 수호신으로서 프타는 창조적 인식과 발화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테이르 엘-메디나의 장인들은 자연스럽게 프타를 자신들의 기예와 일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4)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은 프타를 *nb m<sup>3</sup>rt* “마아트의 주”로 묘사하였으며(3행) 석비의 주인인 네페르아부의 중언에서처럼 그는 어떠한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정의의 신이다(4-5행). 끝으로 (4)번 텍스트에서 프타의 가장 일반적인 호칭인 *nfr hr* “자애로운 얼굴을 소유하신 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테베의 주신 아문은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 텍스트』에 이미 언급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신이다.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기원전 1550-1295년)에 이르러 아문은 마침내 국가신의 지위에 오르며 *nswt ntrw* “신들의 왕”의 호칭을 얻게 되었다. (1) 테베 분묘 139번 「파와의 낙서」에서 아문은 *p3 hnwtj mnh* “빈자/고아의 수호신”((1)번 텍스트, 7-8행)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타 동시대의 개인신심 텍스트에서 그는 「파와의 낙서」에서처럼 “멀리서 오시는 분”((1)번 텍스트, 7-8행)이며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다. 한편 (1)번 텍스트 1행에서는 명계의 신 오시리스(Osiris)의 호칭인 *wnn-nfr* “웬네페르”를 위해 땅에 입을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오시리스와 관련된 호칭이나 신격 등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찬양은 하늘의 아문에게 땅에 입 맞추는 것은 명계의 왕인 오시리스에게 각각 드린 것으로 보인다.

### 2) 전국적으로 숭배되는 신

테이르 엘-메디나의 석비 및 낙서에서 국가신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숭배되는 신으로는 토클·슈·소카·콘수 등이 있다. 이 중 *šw* “슈”(Shu)는 「헬리오폴

리스 창세신화(Heliopolitan Cosmology)에서 창조주 아툼(Atum)의 몸에서 발현한 첫 세대 신으로서 생명의 숨결/공기와 빛으로 가득 찬 대기로 표상되는 신이다. 앞서 언급된 (1)번 텍스트에서 찬양의 대상과 땅에 입 맞추는 대상이 다르듯 (2) 「뱅크스 석비 6번」에서도 찬양의 대상이 되는 신은 이아흐-토트(Iah-Thoth)인 반면, 땅에 입 맞추는 의례의 대상이 되는 신은 슈이다. 아울러 텍스트 (1)번에서의 아문과 오시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아흐-토트와 슈의 조합 역시 . 또한 슈의 신격에 대해 호칭 등으로 그 자비로운 성격이 따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한편 (7)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1번」에서 기도의 대상인 *zkr* “소카”(Sokar)는 유성에서 발견되는 철광석(meteoric ore)의 신인 사막의 신으로서 멤피스의 서부에 위치한 집단 묘역지대인 사카라(Saqqara)의 주신이다. (7)번 텍스트에서 소카가 언급된 것은 테베에서의 소카의 인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르 엘-메디나를 비롯한 테베 서부에서는 소카를 위한 대규모 축제가 거행되었다. 따라서 (7)번 텍스트에서 소카가 언급되는 것은 당시의 개인신심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토트와 콘수는 전국적으로 숭배되는 신들의 그룹 중 실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한 신들인데 이들이 모두 월신(月神)의 범주에 속하는 신들이며 동시에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콘수에게는 질병, 특히 눈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콘수가 달의 신으로서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신으로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콘수와 토트 모두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토트가 의학과 주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치유의 권능을 배운다면 콘수는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권능을 통해 기적적인 치유를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악령을 물리치고 환자를 치유하는 권능이 포함되었다.

네이르 엘-메디나의 석비 및 낙서 중 (2) 「뱅크스 석비 6번」에서 이아흐-토트는 *ntr* {*3*} *nfr sdm nhw*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한] 신”으로 묘사되며(1행) (5)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46번」에서는 *p3* {*n*} *hbjp* “용서함으로 [아름다우신] 분”

으로 언급되어 있는데(1행) 이들은 개인신심에서의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8)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2번」에 열거된 콘수의 신격은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우선 이 석비에서 콘수는 *hnsn w nfr htp* “콘수 네페르호텝”(Khonsu Neferhotep)으로 불린다(1행). 콘수는 그 신격과 권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Götterspaltung)되는데 이렇게 분화된 존재들이 각각 독립적인 신격체로 존재·활동한다. 텍스트의 당사자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인 “콘수 네페르호텝”이 콘수의 모든 권능을 포괄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와 함께 콘수는 *nb nTrw* “신들의 주,” *dhwij nb jwnw-šm* “남쪽의 헬리오폴리스의 토탄,” *hrw hrj m'b3y* “30의 법정을 주관하는 호루스,” *hrw nb 3wt-jb* “행복의 주 호루스” 등과 같은 독특한 호칭으로 불리는 한편, *p3 'n htp* “용서함으로써 아름다우신 분”과 같이 데이르 엘-메디나의 석비 및 낙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 예컨대, (5)번 · (7)번 텍스트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 호칭도 언급되고 있다.

### 3) 테베 서안의 수호여신

데이르 엘-메디나의 수호신으로 송배된 *mrt-sgr* “메레트세게르,” 즉 “침묵을 사랑하시는 여신”은 왕가의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엘-쿠른(El Qurn) 산 정상의 여신으로 대개 뼈리를 튼 코브라 혹은 코브라의 몸에 여성의 얼굴과 양팔을 가진 여신으로 표상되었다. 데이르 엘-메디나의 장인들에게 메레트세게르는 그들의 마을을 수호하는 자애로운 여신인 동시에 자신의 권능으로 불의를 저지른 자를 냉정하게 공격하는 무서운 여신이다. 장인을 비롯한 수많은 마을의 구성원들이 여신에게 봉헌석비를 바쳤는데 본고의 분석 대상인 (3) 「영국박물관 석비 374번」에서 메레트세게르는 *hnwt jmmt* “서방의 여주”(1행 · 3행)와 *'n st r htp* “자애롭게 변하시는 분”(3-4행)으로, (9)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에서는 엘-쿠른 산에 거주하는 여신답게 *dhn(t) jmnnit* “서쪽의 정상”(1행)으로 각각 불린다. “서방의 여주”는 망자를 명계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토르(Hathor) 여신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서쪽의 정상”과 함께 테베 서안을 지배하는 여신의 신격을 드러낸다. (9)번 텍스트는 여신의 신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중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세크메트(Sekhmet)와 같은 고대 이집트의 다른 강력한 여신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징벌할 때에는 *m hwtj m m3j hs3t* “사자가 치는 것처럼 치심”을 행하고(10행) 용서할 때는 *m Bw ndm* “달콤한 미풍과 함께” 오는(12행)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 여신이다. 메레트세게르와 같이 국가신 혹은 전국적으로 숭배되는 신이 아닌 지역의 수호신은 현지인의 삶에 밀착하여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친근한 신으로서 개인신심의 광범위한 숭배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신격화된 왕실 구성원

(6)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0번」에 언급되는 아흐모세-네페르타리와, 왕가의 계곡을 왕실 묘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데이르 엘-메디나를 건립한 그의 아들 아멘호텝 1세는 장인들의 분묘벽화나 봉헌석비에서 지역민들의 숭배를 받고 이들을 기리는 축제가 거행되는 완전한 신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아흐모세-네페르타리는 고대 이집트의 도상체계에서 죽음·부활·다산을 상징하는 검은색 피부를 한 왕비이자 왕의 모친으로 형상되어 광범위하게 숭배되었다. (6)번 텍스트에서 아흐모세-네페르타리는 *hnwt p3 dmj* “이 성읍의 여주”로 불리며(2행) 찬양의 대상이 될 뿐 “땅에 입맞춤”的 대상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다른 신들과의 신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왕비는 공동체의 남녀 모두에게 숭배되었지만 (6)번 텍스트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는 대상 역시 같은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 이들 참회 당사자가 자신이 개인신심의 대상으로 선택한 여인들에게 호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낮에도 어둠을 보는 현상, 다시 말해 (일시적) 설명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종교적 맥락에서의 그 성격을 살펴보자.

### 3. 안질환에 의한 설명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대 이집트와 같은 환경에서 오감을 통해 수집

된 전체 감각정보의 약 70-80퍼센트를 차지하는 시지각의 상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라 할 수 있다. 특히 암굴묘 구조의 왕묘를 만들어야 하는 데이르 엘-메디나의 장인들과 같이 현대의 간도와 유사한, 비좁고 분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안구의 염증이나 궤양에 의해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실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33)</sup> 그러나 실명을 비롯한 여러 안질환은 데이르 엘-메디나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열기·먼지·곤충·열악한 위생상태 등 당시의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실명을 비롯한 다양한 안질환이 존재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특히 파리나 실명까지 이행될 수 있는 트라코마(*trachoma*)를 유발하는 트라코마 박테리아(학명: *Chlamydia trachomatis*)의 매개체이다. 결막에 염증을 유발하여 눈이 충혈되고 밝은 빛에 예민해지는 트라코마 환자는 과도한 양의 눈물을 흘리게 되며 각막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와 실명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 이후 실명될 확률이 약 5퍼센트에 이르는 트라코마의 또 다른 의학적 명칭이 “이집트 안염”(*Egyptian ophthalmia*)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선왕조 시대(기원전 5300-3000년경)부터 눈화장의 풍습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트라코마와 같은 곤충에 의한 안질환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데이르 엘-메디나의 조각가 이푸위(*Ipuw*)의 분묘(TT 217)에는 공사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묘사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중 한 치료사는 인부의 눈에서 무엇인가를 빼내고 있는 모습 혹은 인부의 눈에 암약과 같은 용액을 넣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그림 1.). 이 치료사는 안질환을 담당하는 *swnw jrtj* “눈 의사,” 즉 안과 전문의로 추정된다. 아울러 『에

33) Robert L. Miller, “Palaeoepidemiology, Literacy, and Medical Tradition among Necropolis Workmen in New Kingdom Egypt,” *Medical History* 35 (1991): 19-21; Paul Ghalioungui, *The House of Life (Per Ankh): Magic and Medical Science in Ancient Egypt* (Amsterdam: B. M. Israël, 1973), 130-131.

34) Bruno Halioua, Bernard Ziskind, *Medicine in the Days of the Pharaohs*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133-135.

베르스 파피루스』(Papyrus Ebers)와 같은 일반의학의 치료법을 다룬 파피루스에도 안과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336-431) 텍스트에 등장하는 전문용어 중에는 *h3tj* “시력저하(몽롱)”(p.Ebers §§339-340; §407) · *h3w* “약시”(§415) · *kkw* “어둠”(§415) · *ht* “백내장/녹내장”?(?) (§378; §385) · *3d(j)t* “안염”(§369; §409) · *wh3t* “트라코마”?(?) (§346) · *spt* “실명”(§§356-358; §420) 등이 있다.<sup>35)</sup> 그리고 이 파피루스 제 415장(62,18-19행)의 표제인, *kt nt dr h3tj kkw h3w st-ε hpr m jrty* 「시력저하(몽롱) · 어둠 · 약시 및 눈에 발생하는 악한 기운을 제압하는 또 다른 [처방]」에서 어둠이 다른 안질환과 동일선 상에서 언급된다는 사실을 통해 앞서 살펴본 봉헌석비에 언급된 “어둠”은 상징적 · 종교적 경험으로서의 어둠이 아니라 의사들이 임상에서 경험하는 실명 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36)</sup> 결론적으로, 고대 이집트와 같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환경과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생충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구적 혹은 일시적 실명은 빈번히 발생

35) S. Ry Anderson, “The Eye and Its Diseases in Ancient Egypt,” *Acta Ophthalmologica Scandinavica* 75 (1997): 340-341. 후기 이집트어의 어휘 중 *k3mn* “실명하다” 혹은 “실명시키다”의 경우 물리적 상처 혹은 징벌에 의한 실명을 의미한다. 그 용례로 이후 소개될 『거짓에 의해 눈먼 진실』에는 이 동사가 징벌로서의 실명에서 타동사적으로 사용된다(p.Chester Beatty II, 11,3): *j[w:tw] hr [k3mn.f t3y.f jrty]* “그들은 그[거짓]의 눈을 멀게 했다. 상기 동사의 타동사적 용법에 대한 또 다른 용례는 다음 참조: T. Eric Peet, “A Historical Document of Ramesside Age,”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0, no. 2 (1924): 122. 한편 신왕국 제 19 왕조 람세스 3세 시해음모를 다룬 사법 파피루스 중 하나인 『롤린 파피루스』(Papyrus Rollin)에는 시해 주모자 중 한 명인 *p3-b3k-k3mn* “파이바크카멘”(Paibakkamen)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데 그는 국사범으로 기소되면서 본명이 “이 눈먼/맹목적인 종”으로 개명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중죄를 저지른 인물의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바꾸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름을 개인의 정수가 담긴 독립된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름이 바뀌면 개인의 본질이 바뀌며 이렇게 바뀐 본질은 그 개인을 영원히 규정하므로 이름을 나쁜 의미로 바꾸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처벌 방법 중 하나였다.

36) Bendix Ebbell, *The Papyrus Ebers: The Greatest Egyptian Medical Document* (Copenhagen: Levin & Munksgaard. Ejnar Munksgaard, 1937), 75; Hermann Grapow, *Grundriss der Medizin der alten Ägypter IV-1. Übersetzung der medizinischen Texte* (Berlin: Akademie Verlag, 1958), 47, 52; John F. Nunn, *Ancient Egyptian Medicin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6), 200.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학적 증거와는 달리 고대 이집트에서 실명의 양태와 맹인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집트의 분묘 벽화에서 오늘날의 연주를 겪하는 가수에 해당하는 하프 연주자를 일관되게 맹인으로 묘사하는 예술적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sup>37)</sup> 그 외 일반인의 안과 질환에 대한 고고학적·조형예술 상의 증거, 그리고 미라 검시를 통한 안질환 등의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4) 「영국박물관 석비 374번」에서 메레트세게르와 아멘나크트의 눈을 일부러 그리지 않은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그림 2). 그러나 안과질환과 관련한 언급은 앞서 열거한 석비에서 “그대의 섭리로 저는 (낮에도) 그대가 만든 어둠을 봅니다,” “낮을 밤과 같이 봅니다,” “그대가 만든 낮의 어둠”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 묘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시력저하·약시와 실명과 유사한, 참희당사자들 중 적어도 일부는 실제로 경험했던 실제적인 안질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sup>38)</sup>

#### 4. 종교적 체험 혹은 상징으로서의 실명

빛에 민감한 동물인 인간에게 ‘빛 = 선 ↔ 어둠 = 악’이라는 등식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빛의 원천인 태양신이 국가신으로 승배되던 고대 이집트에서 이 같은 인류의 보편적 심성, 즉 어둠·암흑 = 음(陰)은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 이전의 미분화(未分化) 및 창조주의 비현현(非顯現)과, 즉

37) Lise Manniche, “Symbolic Blindness,” *Chronique d’Égypte* 53/105 (1978): 16-18. 필자는 리제 마니체(Lise Manniche: 1943년-현재)가 언급한 묘사의 다양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며 고대 이집트 조형예술에서의 맹인의 표현은 일관되었다고 생각한다.

38) Battiscombe Gunn, “The Religion of the Poor in Ancient Egyp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 (1916): 88-89; Jaroslav Černý, *Egyptian Stelae in the Bankes Collection*, Bankes Stela no. 6 (Oxford: Griffit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Press, 1958); Jac J. Janssen, “Absence from Work by the Necropolis Workmen of Thebes,”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8 (1980): 136.

음 · 사악함 · 영적 몽매 등을 상징한다. 신왕국 시대의 다양한 태양신 찬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부각되는 감각은 신적인 창조행위의 가시성(可視性)을 파악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듯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세상의 존재 의미(*raison d'être*)는 빛[光輝]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일출/낮과 일출/낮 사이에 찾아오는 일몰 혹은 빛의 부재로 상징되는 밤은 모든 형체와 윤곽이 암흑 속에서 해체되는 시간, 무질서과 온갖 혼돈의 존재들이 그들의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한 시간이다. 이와 같은 어둠·악의 일시적 우위는 그러나 어김 없이 찾아오는 일출, 즉 어둠에 대한 태양신의 승리로 무산되고 만다. 매일 새벽 새롭게 부활하는 태양은 인간과 식물, 동물을 비롯한 만물을 소생시킨다. 이제 미분화와 비현현의 순간은 물리가고 형해만 남았던 모든 것들이 윤곽과 속성을 되찾고 신전 지성소에서 신상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고대 이집트의 *ḥ3b* “축제”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태양의 부재는 빛의 부재와 함께 빛으로 상징되는 질서의 부재, 즉 혼돈 혹은 악의 승리이다.<sup>39)</sup> 반면 일출 · 아침은 혼돈 혹은 악의 폐배, 즉 질서의 재확립이다. 이와 같은 도식은 이집트의 왕권 이데올로기에서는 (하늘에서 태양이 등장 하듯) 지상에서의 왕의 등장, 즉 태양신·지배자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만든다. 아침의 태양신은 밝아오는 하늘을 자신의 광채, 즉 *nfrw* “완벽함”으로 채운다. 태양신이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는 것은 마치 성장(盛裝)을 하고 그의 신민들 앞에 영광스러운 왕권을 드러내는 신-왕의 등장에 비견 될 수 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어에서 *h3j* (영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다”와 *h3w* “현현”에 사용된 성각문자는 아침에 태양이 모래언덕 위로 떠오르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왕의 출현은 혼돈의 상황을 경험한 후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39)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재앙문학(disaster literature) 작품 중 하나인 『네페르티의 예언』(The Prophecies of Neferty)에서 혼돈에 빠진 이집트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p.Leningrad 1116B*, 24-25): *wnm t3 pn m mj / jtn hbs.w* <sup>(25)</sup> *nn psdf <r> m33 rhyt* “이 땅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해가 빛을 잃으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추지도 못하는 구나!” 여기서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은 우주적 질서가 전복된 상황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시점에서 특히 강조된다. 아마르나 시대 이후 아문 등과 같은 국가신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 체제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파라오 투탕카멘의 등장은 다음과 같이 시각화된다.

『투탕카멘의 개혁칙령』 (Urk. IV, 22, 10-11행)

... *bȝyt [hm.f] hr st jt(j) / hqȝ.n.f jdbw hrw / kmt dȝrt hr st-hr.f / b n m ksw*  
<sup>(11)</sup> *n bȝw.f // jstw hm.f m ȝf.jmj pr ȝ3-ȝpr-kȝ-rȝ mj rȝ m-hnw pt / wn.jn hm.f*  
*hr jrt shrw nw bȝ pn mȝhrw nw jdbwj*

그러나 시간이 지나 폐하[투탕카멘]께서 부왕[아멘호텝 4세/아肯아텐]의 왕좌에 오르셨고 호루스의 양안(兩岸)[이집트]을 다스리시도다. 검은 땅[이집트]과 붉은 땅[사마]이 폐하의 통치 아래 놓였으며 모든 땅이 폐하의 권능에 굽복하였다. 폐하께서는 태양신께서 천계에 계신 것처럼 아아-케페르-카-라의 영지 안의 왕궁에서 땅을 다스리셨으며 양안의 정사를 돌보셨다.

왕의 존재 혹은 출현이 태양신의 존재 혹은 현현, 그리고 우주적 질서의 (재) 확립과 동일시되는 이런 이미지는 이집트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 밖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왕국 시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낸 외교서신들이다. 오늘날의 게제르(Gezer)에 해당하는 도시국가 가즈루(Gazru)의 왕인 앗다-다누(Adda-danu)는 파라오와 빛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비한 자신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sup>40)</sup>

『아마르나 외교서신』 292번 토판(EA 292 = BM E37647: 1-17행)

*a-na LUGAL EN-ia DINGIR.MEŠ-šia] <sup>d</sup>UTU-ia qj2-bi2-ma um-ma <sup>l<sup>d</sup></sup>IŠKUR.DLKUD*  
*IR-ka ep-ri ša 2 GIR<sub>3</sub>M/[EŠ]-ka a-na GIR<sub>3</sub>MEŠ LUAL EN-ia DINGIR.MEŠ-ia*

40) 이와 거의 유사한 표현을 통해 파라오와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마르나 외교서신」의 토판은 다음과 같다: (1) 266번 토판(EA 266 = VAT 1590: 9-25행): 가즈루의 왕 타기(Tagi)의 서신; (2) 296번 토판(EA 296 = BM 29840: 9-22행) 도시국가 가지(Gaza)의 왕 야흐티리(Yakhtiri)의 서신.

<sup>4</sup>*UTU-ia 7-šu 7-ta-a-an am-qu<sub>2</sub>-ut da-ag-la-ti<sub>7</sub> ki-ia-am u<sub>3</sub> da-ag-la-ti<sub>7</sub> ki-ia-am u<sub>3</sub> la-a-na-mi-ir u<sub>3</sub> da-ag-la-ti<sub>7</sub> a-na mu-ḥi LUGAL EN-ia u<sub>3</sub> na-mi-ir u<sub>3</sub> ti<sub>7</sub>-na-mu-šu SIG<sub>4</sub>-tu iš-tu šu-pal tap-pa-te-ši u<sub>3</sub> a-na-ku la-a i-na-mu-šu iš-tu šu-pal 2 GIR<sub>3</sub>MEŠ LUGAL EN-ia iš-te-me<sub>2</sub>*

저의 주, [저의] 신, 저의 태양이신 왕께, 그대의 종이자 그대 빌치의 먼지인 안다-다누의 전언: 저는 왕의 빌치에 7번에 또 7번을 엎드리나이다. 저의 주, 저의 신, 저의 태양이시어. 제가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빛은 없습니다. 제가 저의 주이신 왕을 봐오니 그제야 빛이 있습니다. 아래 벽들이 위 벽들에서 빼질 수는 있겠사오나 저는 저의 주이신 왕의 빌밑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제 ‘빛 · 태양 · 왕 = 선 · 삶 · 질서 · 지혜 ↔ 어둠 = 악 · 죽음 · 무질서 · 영적 몽매’라는 확대된 도식은 특히 신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종교의례인 축제가 금지되었던 아마르나 시대 이후 빛 · 태양 · 왕에 대한 “시각적 열망”(Sehnsucht des Auges)을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개인신심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말기부터 이집트인들은 실명을 “신을 징벌”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신(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죄를 저지른 개인을 벌하는 것은 빛의 지배를 받는 그(녀)의 공동체와 단절하는 것이고 그 단절의 가장 가시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시력을 빼앗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빛 = 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정상적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육체적 설명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상징적 은유가 될 수밖에 없었다.<sup>41)</sup>

41) Joris F. Borghouts, “Divine Intervention in Ancient Egypt and its Manifestation (*b3w*)”, in *Gleanings from Deir el Medina*, ed. R. J. Demarée & Jac. J. Janssen (Leiden: Nederlands Instituut voor het Nabije Oosten, 1982), 9; Assmann, “Ocular Desire in a Time of Darkness. Urban Festivals and Divine Visibility in Ancient Egypt,” 26-29;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226-227. 여기서 아스만은 아마르나 시대 이후 축발된 “시각적 열망”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다음 세 가지 맥락에서 설명한다: (1) 축제의 맥락: 아마르나 시대에 축제가 금지됨에 따라 지상에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었던 땅으로 임해하는 신에 대한 시각적 열망; (2) 개인신앙의 맥락: 부재 혹은 비가사성이 무지 혹은 징벌로까지 여겨졌던, 개인이 승배의 대상으로 선택한 신에 대한 시각적 열망; (3) 고통과 구원의 맥락: 그(녀)의 얼굴을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돌려 그(녀)를 보고자 하는

시력을 빼앗는 것이 정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신화적 선례는 오시리스의 왕위를 두고 적법한 왕위 계승자인 호루스와 오시리스의 살해자이자 찬탈자인 세트(Seth) 사이의 투쟁을 다룬 『호루스와 세트의 투쟁』(Contendings of Horus and Seth)에서 발견된다.<sup>42)</sup> 이 신화에 따르면 분노로 이성을 잃고 모신 이시스에게 상해를 가한 호루스의 폐륜적 행위에 대하여 신들이 처벌을 내릴 것을 결정하고 이에 세트가 지상에 내려가서 호루스를 다른 신들보다 먼저 발견한 후 두 눈을 뽑아 산에 묻어 버리는 사형(私刑)을 감행한다.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p.Chester Beatty I, 9,12-10,5 = LES 50.5-13*)

...<sup>(9,12)</sup> ch<sup>c</sup>n p<sup>3</sup> |<sup>(10,1)</sup> r<sup>c</sup>-hrw-<sup>3</sup>htj (hr) ḫ-sgb 3 / jr.f hr dd n t<sup>3</sup> psdt / hn.n jry.n  
nf sbȝyt 3t / wn.jn t<sup>3</sup> psdt |<sup>(10,2)</sup> (hr) tz r nȝj dw r wh<sup>3</sup> hrw zȝ-jst / jst jr hrw  
sw sdr:(w) hr nh<sup>3</sup> sn-wȝ<sup>c</sup> |<sup>(10,3)</sup> m p<sup>3</sup> t<sup>3</sup> n wh<sup>3</sup>t / wn.jn sth hr gmt.f / jw.f (hr)  
mȝ jm.f / jw.f (hr) hwt.f hr ȝt.f hr p<sup>3</sup> dw / jw.f (hr) rwj |<sup>(10,4)</sup> wdȝ.f 2 m st.w  
/ jw.f tmsw.w hr p<sup>3</sup> dw r shd t<sup>3</sup> / jw p<sup>3</sup> bnr 2 n jrt (hr) hpr m |<sup>(10,5)</sup> zhrrt 2

---

두 눈을 비추는 자애로운 신에 대한 시각적 열망. 특히 여기서 세 번째 고통과 구원의 맥락에서의 시각적 열망은 (1)번 테베 분묘 139번 「파와의 낙서」에서 파와의 탄원(19-20행), *shd n.j / mȝ3.(j) t{w} / wȝh k3.k / wȝh pȝy.k hr nfr mrj / jw.k r jj(t) m wȝwj*  
<sup>(20)</sup> *dȝ.k ptr tw / bȝk jm zhȝw pȝ-wȝh jm* “저를 밝히시어 제가 그대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대의 카가 영속하고 그대의 아름답고 사랑 받는 얼굴이 영속하는 한 그대는 면 곳에서 오셔서 소인 서기관 파와로 하여금 그대를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에 가감 없이 표현되어 있다.

- 42) 고대 서아시아에서 시력을 빼앗는 것이 정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신화적 선례로는 『구약성서』『사사기』에서 삼손이 머리카락에 담긴 신적 능력을 상실한 후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강제노역에 처해지는 사건(16:21)을 들 수 있다. “삼손”이 “태양에 속하는 사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설명은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 = 선-희망이 빛을 잃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바알(Ba'al) 신앙의 중심지인 우가리트(Ugarit)의 3대 문학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아크하투 이야기』(Tale of Aqhat)에서는 태자 아크하투를 잃은 다니일루(Dn'ilu) 왕은 바알에게 아들을 살해한 자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탄원한다(KTU3 1.19:IV:2-6): *yšu . gh / w yšḥ . y lk . qrt . ablm / d ȝlk . mḥs . aqht . ȝzr / ȝwrt . yšt̄k . bȝl . 1 ht / w ȝlmh . 1 ȝnt . p dr*. “그는 소리를 높여 외쳤다. ‘슬퍼하라, 도성 아빌루마여, 영웅 아크하투를 살해(한 책임)이 네 위에 놓이리라! 바알은 너를 눈멀게 만드실 지어다! 지금부터 영원히 피난민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세대에 세대를 걸쳐!’”

/ jw.sn (hr) rdw m zšnj

그리자 태양신 래-호라크티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9신계의 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서 그[호루스]를 크게 벌주자” 하셨다. 그리하여 9신계의 신들은 언덕으로 올라가 이시스의 아들 호루스를 찾았다. 그러나 호루스는 오아시스의 땅에 있는 “무는-머리칼”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 그때 세트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꽉 잡은 후 산등성이에 등이 (먼저) 닿도록 던졌다. 이어 그[세트]는 그[호루스]의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 그들을 산에 묻어 땅을 밝히게 했다. 그러자 그의 두 안구는 2개의 구근(球根)으로 변했으며 두 송이의 수련으로 자라났다.

여기서 두 눈을 상실한 호루스는 하토르(Hathor) 여신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두 눈을 되찾는다. 사춘기에 들어선 영웅신 호루스의 폭력성은 무모함과 방향성의 상실을 상징하는 설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실명은 성애의 여신이자 성인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자애로운 암소여신인 하토르의 권능에 의해 다시 회복된다. 이후 호루스는 그때까지 유지되었던 끈끈하면서도 구속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를 찾게 되며 이어지는 세트와의 대결을 통해 이집트의 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육체적·정신적으로 준비된 리더로 성장한다.

또한 진실과 거짓을 구체적인 인물로 의인화시킨 신왕국 시대의 우화(allegory) 『거짓에 의해 눈먼 진실』(The Blinding of Truth by Falsehood)에서는 *mʒt* “진실”에게 누명을 씌운 *grg* “거짓”이 재판을 담당한 신들에게 “진실”的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형제 간의 대립이라는 테마에서는 신왕국 시대의 서사문학 작품 『두 형제』(Two Brothers) 이야기를, 악한 동생에 의한 선한 형의 고행이라는 내용에서는 「오시리스 신화」의 전반적 구도를 각각 차용한 이 작품에서 “거짓”에 의해 시력을 잃은 “진실”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거짓에 의해 눈먼 진실』 (p.Chester Beatty II, 10,5-11,3 = LES 35.6-36.9)

(<sup>10,5</sup>) *wn.jn.<ʃ> hr dd n b psdt / wpj mʒt hn̩ grg / jnk pʒy.f šrj / jjr.j jjt*

<sup>(10.6)</sup> r ‘n n.f wšbt / wn.jn grg hr jrt ‘nh n nb [‘nh.(w)]-(w)d3.(w)-s(nb.w) r dd  
 / [w3h jmn] / w3h p3 hq3 ‘nh.(w)-(w)d3.(w)-s(nb.w) / mtw.tw (hr) gm(t) <sup>(10.7)</sup> m3t  
 / jw.f ‘nh.(w) / jw.tw k3mn.f t3y.f jrtj / mtw.tw hr dj.f r jrj 3 n p[3 pr] [m3t]  
 / wn.jn <sup>(11.1)</sup> p3 ‘dd hr [jrt ‘nh n nb ‘nh.(w)-(w)d3.(w)-s(nb.w) r dd] / [w3h jmn]  
 / [w3h p3 hq3 ‘nh.(w)-(w)d3.(w)-s(nb.w)] / [m]tw.tw hr gmt.f / <sup>(11.2)</sup> jw.f ‘nh.(w)  
 / jw.tw hr jrt [sb3yt n grg] / [jw.tw hr hwt tw.f m 100 sh 5 wbn / <sup>(11.3)</sup> j[w.tw]  
 hr [k3mn.f t3y.f jrtj] / [jw.tw hr djt tw.f r jrj 3 m] p3 pr m3t

그러자 그가 9신계의 신들에게 말하기를, “진실과 거짓에 대해 판결하소서. 저는 그[진실]의 아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거짓]에게 복수하기 위함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거짓이 주 - 장수·변영·강성하소서 - 께 맹세하여 말하기를, “아문께서 영속하시는 한, 지배자 - 장수·변영·강성하소서 - 께서 영속하시는 한, 진실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면43) 그[거짓]의 두 눈을 멀게 만들고 그[거짓]를 진실의 집의 문지기로 만들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 소년[진실의 아들]이 주 - 장수·변영·강성하소서 - 께 맹세하여 말하기를, “아문께서 영속하시는 한, 지배자 - 장수·변영·강성하소서 - 께서 영속하시는 한, 그[진실]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면 거짓에게는 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거짓]는 100대의 태형과 5회의 자상형(刺傷刑)에 처해졌으며 두 눈이 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의 집 문지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은 『언변 좋은 농부』에서처럼 선인과 악인의 사회적 지위가 역전되는 것인데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이 과정에서 “거짓”은 눈이 머는 형벌을 받게 된다.

실명을 신의 정별로 보는 관점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 저술가인 헤로도토스 (Herodotus: 기원전 484-425년경)가 이집트를 방문했던 기원전 5세기까지도 존속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 『역사』(Istoria)에서 나일강을 모독한 죄로 시력을 상실하게 된 폐로스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43) 『거짓에 의해 눈먼 진실』에서 “거짓”은 “진실”的 하인들을 끼어 사자에게 잡아먹히도록 사주하지만 “진실”的 하인들은 “거짓”的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거짓”에게는 “진실”이 사자에게 잡아 먹혔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 그 결과 “거짓”은 “진실”이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이처럼 단언하는 것이다.

『역사』 (2.111)<sup>44)</sup>

신관들에 따르면, 세소스트리스가 죽자 그의 아들 페로스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한다.<sup>45)</sup> 페로스는 군사적 업적은 하나도 없고, 다음과 같은 일로 눈이 멀었다고 한다. 한번은 네일로스 강이 여느 때보다 크게 불어나 수위가 18페퀴스나 되었다. 그리고 들판이 물에 잠기자 바람이 세차게 불며 강물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페로스 왕이 오만 무도하게도 창을 집어 들고 소용돌이치는 강물 속으로 던졌는데, 그 뒤 곧 눈병이 나서 장님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10년을 장님으로 지내다가 11년째 되던 해 부토 시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이제 치열 기간이 지나 그가 오로지 남편하고만 동침하고 다른 남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의 오줌으로 씻으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 … 눈병이 난자 그는 이름 있는 모든 신전에 공물을 바쳤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헬리오스의 신전에 바친 2기의 오벨리스크인데, 돌 하나로 된 이 오벨리스크들은 각각 높이가 100페퀴스고 너비가 8페퀴스이다.<sup>46)</sup>

이 텍스트에서 페로스 왕은 자신의 오만한 행동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오만(*ὕβρις*)은 신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장 경계해

44) 원문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09), 214-215.

45) 여기서 세소스트리스(*Σέσωστρος*)는 지방호족들을 억누르고 왕권을 크게 강화시키면서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를 번영으로 이끈 센와세렛 3세(Senwosret III: 기원전 1870-1831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에서 세소스트리스는 홍해 연안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스키타이족과 발칸반도 남동쪽 트라키아(*Θράκη*)까지 정복한 용맹한 왕으로 묘사된다(2.102-103, 107). 세소스트리스는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의 람세스 2세와 함께 『역사』를 비롯한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 문헌에서 “강력한 파라오”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한편 그의 아들 페로스(*Φηρῶν*)는 실존인물이 아니라 일반명사 “파라오”(pharaoh)가 변형된 이름으로 추정된다.

46) 페퀴스(*πηλυκός*)는 큐빗(cubit)에 해당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1큐빗은 52.5센티미터 (202/3인치)이며 따라서 본문에서 범람한 나일강의 수위는 9.45미터, 오벨리스크의 크기는 높이가 52.5미터에 너비가 4.2미터가 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나일강의 범람수위는 최저치를 기준으로 16큐빗, 즉 8.4미터였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나일강의 범람수위는 이상적인 범람수위에서 약 1미터 더 높은 것이다. Christiane Desroches Noblecourt, *Gifts from the Pharaohs: How Egyptian Civilization Shaped the Modern World* (Paris: Flammarion, 2007), 26.

야 하는 악덕 중 하나였다. 아울러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특별한 감사를 표한 신은 헬리오스, 즉 태양신이며 감사의 표현 방식은 햇살을 돌로 형상화한 거대한 오벨리스크 2기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실명의 회복이 생명의 빛줄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표상되는 고대 이집트의 오랜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실명이 징벌, 특히 개인신심에서 자신이 송배의 대상으로 삼은 신에 의해 부과된 징벌이라면 신을 보지 못하는 사태의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과 그에 의해 유발된 “시각적 열망”은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 “시각적 열망”을 추동하는 육체적 실명이 그 자체로 상징적 은유가 되면서 육체적 장애가 수반되지 않는 상징적·종교적 실명까지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시력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이 깜깜한” 상황 역시 “낮에도 어둠을 보는” 실명의 범주 안에 포함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능성에 주목한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석비를 비롯한 텍스트에서 언급된 어둠이 안질환 등에 따른 육체적인 실명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실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빛”으로 상징되는 신의 발현·섭리·은혜와의 단절로 보고자 하는데,<sup>47)</sup> 특히 헬무트 브루너(Hellmut Brunner: 1913-1997년)는 앞서 언급된 신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접근(Gottesnähe)의 반대개념으로서 “신과의 소외”(Gottesferne) 혹은 “신에 의한 방기”(Gottverlassenheit)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

47) Erik Hornung, “Dunkelhei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 ed. Wolfgang Helc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5), cols. 1153-1154; Reinhard Griesammer, “Lich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I, ed. Wolfgang Helck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cols. 1033-1034. 이와 같은 견해는 『신약성경』『요한복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상기시킨다(4:35-36):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두움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 5. 고대 이집트에서의 죄와 참회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석비 등에서의 설명을 육체적 설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종교적 설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들 텍스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참회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설명 혹은 어둠의 체험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들이 공유했던 종교적 심성과 신(들)의 정별을 되돌릴 수 있는 종교적 방편으로서 참회라는 종교적 행위가 해당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참회 혹은 회개는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이를 뉘우친 다음, 앞으로는 같은 죄 혹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참회의 대상에게 선포한 후 용서를 비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은 마음의 변화를,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는 과정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참회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사면은 순전히 신(들)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렇다면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석비를 비롯한 텍스트에서 언급된 죄의 성격이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4.1.3. 참조). 대부분의 석비에서 참회 당사자가 저지른 죄는 기록되지 않았다. (2)번 텍스트에서는 *n³ mdwt hjmwt* “여인들의 언사”로만 암시되어 있고(3행) (4)번 텍스트에서는 예외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위증이라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 추정해 보건대 나머지 텍스트의 당사자들이 저지른 죄는 아마도 (6)번 텍스트에서처럼 개인신심의 대상이 되는 *\*zp n tht r DN* “신(들)을 거스르는 죄”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죄는 현행법 혹은 관습법 등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crime)였을까, 아니면 알려진 경우 비난이나 회피(따돌림)의 대상 혹은 개인적인 회한과 자숙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종교적 죄악(sin)이었을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고대 이집트에서는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과 같이 법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반포하는 전통이 없

었다. 따라서 당국 혹은 공동체의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형량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데이르 엘-메디나와 같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구성원 간의 유대가 긴밀한 공동체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에 대한 처분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본고의 분석 대상인 데이르 엘-메디나의 참회석비를 비롯한 여러 텍스트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비행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관련 기록의 소실을 고려할 때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각종 사건과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이들이 공동체의 비난 혹은 당국으로부터의 모종의 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2) 「뱅크스 석비 6번」, (6)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0번」, (7) 「투리노 박물관 석비 50051번」의 경우 (2)번 텍스트 및 (7)번 텍스트는 데이르 엘-메디나에 거주하는 장인의 아내, 그리고 (6)번 텍스트는 장인의 어머니 등으로 참회의 당사자들이 모두 여성이다. 여기서 (2)번 텍스트의 경우 자신의 죄가 *n3 mdwt hjmwt* “여인들의 언사”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3행) 이는 정부 혹은 공동체가 개입해야 할 범죄가 아니다(4.1.3. 참조). 나머지 두 텍스트에서는 당사자의 죄가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 공적으로 기록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범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참회의 계기를 제공한 범죄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간통의 경우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타 고대 서아시아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남성이 간통을 저지른 경우 대개 도덕적 비난이나 (당사자가 관리인 경우)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일부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간통을 저지른 아내에 대한 권리가 모두 박탈되는 합의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성의 경우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한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이혼 및 출가 등의 처분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비에서 이들이

모두 아내라는 호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2)번 텍스트의 경우 *nbt-pr jt-nfr.tj m<sup>3</sup>c(t) hrw* “안주인이자 진실 된 목소리 이이트-네페르티” (5-8행); (6)번 텍스트의 경우 *nbt-pr jj m<sup>3</sup>c(t) hrw* “안주인이자 진실 된 목소리 이이” (5-6행); (7)번 텍스트의 경우 *nbt-pr nbt-nht <m<sup>3</sup>t hrw>* “안주인이자 [진실 된 목소리] 네베트네헤트” (4행) - 이들이 간통으로 인해 “아내”라는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6)번 텍스트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간통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석비를 비롯한 텍스트에서 언급된 죄가 공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고백 혹은 암시하는 죄가 도덕적·종교적 죄악 이외에도 또 다른 성격의 죄, 즉 원죄(original sin)는 아니었는지 여부 역시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 이집트에는 에덴동산에서의 유혹과 타락에 해당하는 신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의 원죄는 죄악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부정적 인간관(negative anthropology)의 관점에서 악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즉 자율의지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대 이집트의 “신정론”(theodicy) 흥미롭게도 데이르 엘-메디나에서 작성된 텍스트 중 하나는 이와 같은 부정적 인간관에 따른 고대 이집트의 원죄를 개인신심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배를린 석비 20377번』 (제 2 단, 10-13행)

... |<sup>(10)</sup> *dd.f. / hr wn mtr b3k r jrt bt3 / hr mtr nb r htp / bw jry nb n w<sup>3</sup>st*

|<sup>(11)</sup> *hrw drf qnd.tw jrj / qnd.f m sm(?) n 3t nn zpyt / {mhyt} nn.tj n.n m htpw*

/ |<sup>(12)</sup> *jmn {qd}.(w) hr t3w.f / w3h k3.k / jw.k r htp / bw w3m.n nn / jn zh3w-qd*

*m st-m<sup>3</sup>t |<sup>(13)</sup> nb-r<sup>c</sup> m<sup>3</sup>c hrw*

그[네브라]가 말하기를, “종은 악을 저지르나 주인께서는 용서하시니라. 테베의 주께서는 하루 온종일 분노하시지 않으시니 그의 분노는 일순 사라지고 혼적도 남지 않느니라. 그의 숨결은 평화 속에 귀환했으며 아문께서는 그의 숨결과 함께 돌아오셨다. 당신[아문]의 카가 영속하시는 한 그대는 용서하실 것이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실묘역의 윤곽선 소묘화가이자

진실된 목소리 네브라 올림.

「베를린 석비 20377번」의 주인인 네브라(Nebräa)는 *hr wn mtr b3k r jrt b3 / hr mtr nb r htp* “좋은 악을 저지르나 주인은 용서하는 법”이라고 선언한다(10행). 그리고 주인이신 신의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신의 숨결은 화평함과 함께 귀환 한다. 이 석비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른 봉헌석비를 비롯한 텍스트들과 다른 점은 네브라가 고백하는 죄와 그 죄에 대한 참회가 앞선 텍스트들의 그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일과성 죄악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죄악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베를린 석비 20377번」은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본유적 속성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다룬다. 이와 같은 차이를 통해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 석비와 여타 텍스트는 원죄가 아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죄에 따른 잠정적인 징벌을 다루며 그 죄는 - 「베를린 석비 20377번」도 마찬가지로 - 실정법 등을 위배하는 범죄가 아니라 특정한 도덕적 · 종교적 죄악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 VII. 결론

데이르 엘-메디나의 참회 봉헌석비 등에서 언급된 죄가 공동체의 규범으로 공개적으로 단죄되어야 하는 범죄가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도덕적 · 종교적 죄악이라면 이것이 “낮에도 어둠을 보는” 현상의 본질과 그에 따른 참회와 용서라는 종교적 심성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낮에도 어둠을 보는” 현상이 실제적 안질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 빛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제 18 왕조 말기에 작성된 「카이로 박물관 석비 JE 37463번」은 *m3.j kk(w) {m} h[rt]-hrw n jr.n.k* “저는 매일같이 그대가 행하신 어둠을 봅니다”라는

표현이 최초로 사용된 석비이다(1-2행). 이 표현이 이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m33 kkw m hrw* “낮에도 어둠을 보다”라는 선언 중 가장 앞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m hrw* “낮에도”는 *m hrt-hrw* “매일같이” 혹은 “하루의 일과로서”的 변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밤에만 보아야 할 어둠을) “낮에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로서” 습관적으로 어둠을 본다는 것은 육체적 안질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착된 빛의 결핍의 상태를 부단히 경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낮에도 어둠을 보다”는 처음부터 상징적·종교적 설명을 상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4)번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에서 네페르 아부가 통렬한 어조로 묘사한 그의 경험(6-7행)은 “어둠을 보는 것”이 단순히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장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데이르 엘-메디나의 참회 봉헌석비 등의 당사자들은 무언가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낮에도 어둠을 보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은 그들의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들 텍스트에서 중기 이집트어(Middle Egyptian) \**nj m3.nj st*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혹은 후기 이집트어(Late Egyptian) \**bw m3.j st (jwn)*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와 같은 부정문(negated sentence)은 사용되지 않았다. 논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영어 예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I cannot see anything by day. “나는 낮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 (b) I can see nothing by day. “내가 낮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법적인 관점에서 예문 (a)는 동사가 부정부사에 의해 부정된 부정문인 반면, (b)는 동사가 부정되지 않은 긍정문이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그 구조와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sup>48)</sup> 따라서 긍정문인 \**m33 kkw* “어둠을 본다”라는 동사구의

48) 이와 같은 구문 및 의미의 차이는 이들 문장을 주제어가 전치된 문장이나 강조구문(cleft sentence)으로 변환시킬 경우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두 예문을 주제어가 전치된 문장 혹은 강조구문으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a) \*What I cannot see by day is anything. 혹은 \*It is anything that I cannot see by day.

대상이 되는 “어둠”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확정되어야 한다. 일단 어둠을 『에베르스 파피루스』에서 언급된 시력저하(몽롱) · 약시와 일시적 실명 사이 어딘가에 해당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 규정한다면 “어둠을 본다”는 말은 특정 안질환을 앓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를 빛으로 표상되는 “태양 · 왕 = 선 · 삶 · 질서 · 지혜”的 결핍으로 본다면 텍스트의 당사자는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결핍의 상황을 어둠으로서 목도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이를 텍스트가 “낮에도 어둠을 보는” 상황이 이미 해소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제작 · “출판,” 즉 공개된 것이라면(공적인 공간에서의 석비의 기능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어둠을 본다”는 것은 개인신심의 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한 신의 권능을 증거하고 당사자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중언하는 서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4)번 텍스트에 묘사된 - 그리고 (9)번 「투리노박물관 석비 50058번」에서 암시된 - 네페르아부의 구체적인 고난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육체에 가해진 신의 징벌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데이르 엘-메디나의 봉헌텍스트 등에 제시된 정황은 앞의 두 앞서 “낮에도 어둠을 보는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학자들 역시 이처럼 제한된 문헌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장인들 (그리고 거주민들) 사이에 각종 안질환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멘호텝-휴이의 “저는 매일같이 그대가 행하신 어둠을 봅니다”가 실제 안질환에 따른 시력장애가 유발한 실생활에서의 불편과 좌절감과 결합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 \**m33 kkw m hrw n jr.k* “낮에도 그대가 행하신 어둠을 본다”는 문구는 일종의 종교적

(a) *What I can see by day is nothing.* 혹은 *It is nothing that I can see by day.*

여기서 예문 (a)를 변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비문이 되지만 예문 (b)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두 문장이 구문 상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는 이들 간의 의미차이를 확증하는 구문론적 증거가 된다. Andrew Radford,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66-69.

관용어구로 정착되어 참회와 용서를 중심 테마로 하는 텍스트에 습관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경험이란 (죄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광휘를 직접 목격하고 시력을 상실한 것만 제외한다면)『신약성서』『사도행전』에서 사울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9:8-9):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그의 상태는 *\*can see nothing*, 즉 *\*m33 kkw* “어둠을 보다”에 필적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울은 이후 아나니아(Avaniaς)의 안수에 의해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9:18).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름과 형상으로, 즉 “감지할 수 있는”(tangible) 유무형의 실체로 파악하고자 했던 신화 생성적 사고(mythopoeic thought)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이 경험했던 “어둠” 역시 그것이 실제적인 안질환이었던 신의 징벌로 파악된 “앞이 깜깜한” 경험이었던 “비늘”과 매우 유사한 구체성과 무게 및 질감을 가진 실존적 경험이었을 것이다.

주제어: 개인신심, 데이르 엘-메디나, 참회석비, 메레트세게르, 설명, 안질환, 시각적 열망, “신과의 소외,” “신에 의한 방기,”『에베르스 파피루스』

원고접수일: 2022년 03월 28일

심사완료일: 2022년 06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06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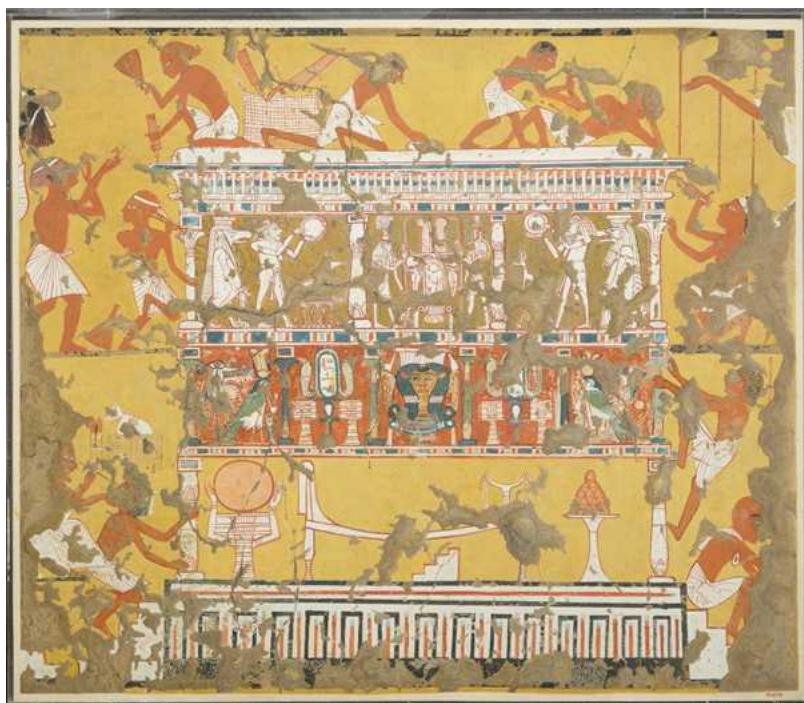


그림 1. 데이르 엘-메디나의 조각가 이푸위의 분묘에 그려진 치료사들의 모습

데이르 엘-메디나의 장인들이 각종 신상과 가구, 집기 등을 만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가상의 선으로 그림을 4등분했을 때 관람자를 기준으로 그림 왼쪽 아래 4분면에는 한 치료사가 인부의 눈에서 이물질을 빼내고 있는 모습 혹은 인부의 눈에 안약과 같은 용액을 넣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편 오른쪽 위 4분면에는 다른 치료사가 골절된 장인의 팔을 맞추고 있다.



그림 2. 「영국박물관 석비 374번」

석비를 반분하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관람자의 왼편에는 데이르 엘-메디나의 수호 여신인 메레트세게르가 왕좌에 앉아 있으며 오른편에는 석비의 주인인 아멘나크트가 꽂아 앉은 채로 두 팔을 높이 들어 손바닥을 여신 쪽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 앞에서 취하는 전형적인 경배의 자세이다. 기준선이나 텍스트의 개입 없이 현물탁자와 그 위의 봉헌불만이 두 인물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여신 발끝과 아멘나크트의 무릎은 거의 닿을 듯이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봉헌석비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드문 묘사이다. 메레트세게르의 이마 부근에는 *mrt-sgr hnwt | jmmt* “메레트세게르 서방의 여주”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텍스트가 석비의 본문을 구성한다. 여신과 아멘나크트의 눈은 모두 새겨지지 않은 채로 남겨졌는데 이것은 “낮에도 어둠을 보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영국박물관 석비 589번」

석비 상단의 중앙에는 카를 의미하는 성각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관람자의 왼쪽에는 멤피스의 주신이자 장인들의 수호신인 프타가 앉아있다. 그를 모신 휘장이 둘러쳐진 사당의 지붕 위에는 봉헌석비에서 자주 발견되는 *msdr sdm* “들어주시는 귀” 4개가 새겨져 있다. 프타의 정면에는 *pth | nb m<sup>3</sup>t | nswt bwj | hr nfr m st.f | dsr* “거룩한 그의 왕좌에 앉아계신 프타, 미아트의 주, 두 땅의 왕, 자애로운 얼굴을 하신 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오른편에는 모든 것을 감찰하는 “신의 눈” 2개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프타를 위한 공물이 쌓여 있다. 하단에는 석비를 반분하는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경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네페르아부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기도문 중 첫 8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네페르아부의 형상까지 새겨져 있는데 이 기도문은 석비의 뒷면까지 10행에 걸쳐 이어진다.

## 참고문헌

-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09.
- Anderson, S. Ry, "The Eye and Its Diseases in Ancient Egypt." *Acta Ophthalmologica Scandinavica* 75 (1997): 338-344.
- Albertz, Rainer.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Regions-interner Pluralismus in Israel und Babylon*. Calwer Theologische Monographien: Reihe A. Bibelwissenschaft 9. Stuttgard: Calwer Verlag, 1978.
- Allen, James P.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Assmann, Jan. "State and Religion in the New Kingdom." In *Religion and Philosophy in Ancient Egypt*, Yale Egyptological Studies 3, edited by William Kelly Simpson, 55-88. New Haven: The Yal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9.
- \_\_\_\_\_. "Ocular Desire in a Time of Darkness. Urban Festivals and Divine Visibility in Ancient Egypt." In *Ocular Desire: Sehnsucht des Auges*, Yearbook for Religious Anthropology, edited by Aharon R. E. Agus, Jan Assmann, 13-29. Berlin: Akademie Verlag, 1994.
- \_\_\_\_\_. *Egyptian Solar Religion in the New Kingdom: Re, Amun and the Crisis of Polytheism*. Translated by Anthony Acock.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5.
- \_\_\_\_\_. "Gottesbeherzigung 'Persönliche Frömmigkeit' als religiöse Strömung der Ramessidenzeit." In *L'Impero Ramesside: Convegno Internazionale in onore di Sergio Donadoni*. Vicino Oriente. Quaderni 1, edited by I. Brancoli, 17-43. Rome: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1997.
- \_\_\_\_\_. *Ägyptische Hymnen und Gebete*.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99.
- \_\_\_\_\_. *The Search for God in Ancient Egypt*. translated by David Lorton.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The Mind of Egypt - History and Meaning in the Time of Pharaohs*. translated by Andrew Jenkins. Cambridge-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Baines, John, "Practical Religion and Piety."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3 (1987): 79-98.

- \_\_\_\_\_. “Restricted Knowledge, Hierarchy, and Decorum: Modern Perceptions and Ancient Institutions.” *Journal of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27 (1990): 1-24.
- \_\_\_\_\_. “Society, Morality, and Religious Practice.” In *Religion in Ancient Egypt: Gods, Myths and Personal Practice*, edited by Byron Shafer, 123-200.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Egyptian Letters of the New Kingdom as Evidence for Religious Practice.”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1 (2002): 1-33.
- Bickel, Susanne. “Aspects et fonctions de la déification d’Amenhotep III.” *Bulletin de l’Institut français d’archéologie orientale* 102 (2002): 63-90.
- Blumenthal Elke. “Sinuhes persönliche Frömmigkeit.” In *Jerusalem Studies in Egyptology,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40, edited by Irene Shirun-Grumach, 213-231. Wiesbaden: Harrssowitz Verlag, 1998.
- Borghouts, Joris F. “Divine Intervention in Ancient Egypt and its Manifestation (3w).” In *Gleanings from Deir el Medîna*, edited by R. J. Demarée, Jac. J. Janssen, 1-70. Leiden: Nederlands Instituut voor het Nabije Oosten, 1982.
- Breasted, James Henry. *Development of Religion and Thought in Ancient Egypt*.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12.
- Brunner, Hellmut. “Blindhei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 edited by Wolfgang Helck, cols. 828-833.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5.
- \_\_\_\_\_. “Heilgötter.”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I, edited by Wolfgang Helck, cols. 645-647.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7.
- \_\_\_\_\_. “Verkündigung an Tiere.” In *Fragen an die altägyptische Literatur: Studien zum Gedenken an Eberhard Otto*, edited by Jan Assmann, Erika Feucht, Reinhard Grieshammer, 119-124. Wiesbaden: Reichert, 1977.
- \_\_\_\_\_. “Persönliche Frömmigkei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V, edited by Wolfgang Helck, cols. 951-963.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2.
- Buccellati, Giorgio. “Ethics and Piety in the Ancient Near East.” In *Civilization of the Ancient Near East*, Vols. III & IV, edited by Jack M. Sasson *et al.* 1685-1696. Peabody: Henderickson Publishers, 2006.
- Cabrol, Agnès *et al.* *Les artistes de Pharaon: Deir el-Médineh et la Vallée des Rois*. Paris: Editions de l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Turnhout: Brepols Publishers n.v. 2002.

- Caneva, Stefano. "The Persea Tree from Alexander to Late Antiquity: A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and Social History of Greco-Roman Egypt." *Ancient Society* 46 (2016): 39-66.
- Carrabine, Eamonn, Paul Iganski and Maggy Lee. *Criminolog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4.
- Černý, Jaroslav. *Egyptian Stelae in the Banks Collection*. Oxford: Griffit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Press, 1958.
- Cooper, Jean C.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London: Thames & Hudson, 1978.
- Di Vito, Robert. *Studies in Third Millennium Sumerian and Akkad Personal Name: The Designation and Conception of the Personal God*.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Press, 1993.
- Ebbell, Bendix. *The Papyrus Ebers: The Greatest Egyptian Medical Document*. Copenhagen: Levin & Munksgaard. Ejnar Munksgaard, 1937.
- Erman, Adolf. *Denksteine aus der thebanischen Gräberstadt*. Sitzungsberichte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49. Berlin: Preuss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911.
- El-Noubi Mansour. "A Harper's Song from the Tomb of Roma-Roy at Thebes (TT 283)."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25 (1998): 251-255.
- Falkenstein, Adem. Wolfram von Soden, *Sumerische und Akkadische Hymnen und Gebete*. Die Bibliothek der alten Welt: Reihe der alte Orient. Zurich-Stuttgart: Artemis, 1953.
- Foster, John L. "The Hymn to Aten: Akhenaten Worships the Sole God."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Volumes III & IV, edited by Jack M. Sasson *et al.* 1751-1761.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5.
- Galán, José M. "Seeing Darkness." *Chronique d'Égypte* 74/147 (1999): 18-30.
- Gardiner, Alan H. *Notes on the Story of Sinuhe*. Paris: Librairie Honoré Champion, 1916.
- \_\_\_\_\_. "The Graffito from the Tomb of Pere."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4, no. 1/2 (1928): 10-11.
- \_\_\_\_\_. *The Library of A. Chester Beatty: Description of a Hieratic Papyrus with a Mythological Story, Love-songs, and Other Miscellaneous Texts. The Chester Beatty Papyri, No 1 with Thirty-one Plates in Monochrome and Thirty in Line*

- by Emery Walker, Ltd. London: The Oxford University Press and Emery Walker, 1931.
- 
- . *Egyptian Grammar: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eroglyphs*, Ltd. London: The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 Ghaliongui, Paul. *The House of Life (Per Ankh): Magic and Medical Science in Ancient Egypt*. Amsterdam: B. M. Israël, 1973.
- Grapow, Hermann. *Grundriss der Medizin der alten Ägypter IV-1. Übersetzung der medizinischen Texte*. Berlin: Akademie Verlag, 1958.
- Greco, Christian et al. *Museo Egizio*. Modena: Franco Cosimo Panini Editore; Torino: Fondazione Museo delle antichità egizie di Torino, 2015.
- Grieshammer, Reinhard. "Lich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II, edited by Wolfgang Helck, cols. 1033-103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 Griffiths, Gwyn. *The Conflict of Horus and Seth: From Egyptian and Classical Sources*.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60.
- Gunn, Battiscombe. "The Religion of the Poor in Ancient Egypt."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 (1916): 81-94.
- Halioussa Bruno, Bernard Ziskind. *Medicine in the Days of the Pharaohs*.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Hart, George. *A Dictionary of Egyptian Gods and Goddesses*.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1986.
- Helck, Wolfgang. "Die Bedeutung der ägyptischen Besuherinschrifte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02 (n.F. 27), no. 1 (1952): 39-46.
- Holland, Glenn S. *Gods in the Desert: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Lahma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 Holmberg, Maj Sandman. *The God Ptah*. Lund: C. W. K. Gleerup, 1946.
- Hornung, Erik. "Dunkelheit." In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 edited by Wolfgang Helck, cols. 1153-115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75.
- 
- . *Idea into Image: Essays on Ancient Egyptian Thought*. translated by Elizabeth Bredeck. New York: Timken Publishers (1992).
- Jacobsen, Thorkild.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Janssen, Jac J. "Absence from Work by the Necropolis Workmen of Thebes,"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8 (1980): 127-152.
- Kitchen, Kenneth A. *Pharaoh Triumphant: The Life and Times of Ramesses II*. Warminster: Aris & Phillips, 1982.
- Lichtheim, Miriam. *Moral Values in Ancient Egypt*.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96.
- Lorton, David. "God's Beneficent Creation: Coffin Texts Spell 1130, the Instructions for Merikare, and the Great Hymn to Aton."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20 (1993): 125-155.
- Luiselli, Maria Michela. "Religion und Literatur: Überlegungen zur Funktion der persönlichen Frömmigkeit in der Literatur des Mittleren und Neuen Reiches." *Studien zur altägyptischen Kultur* 36 (2007): 157-182.
- Mahmud, Adel. "Li-neferti, a Poor Woman." *Mitteilungen des Deutschen Archäologischen Instituts Abteilung Kairo* 55 (1999): 315-323.
- Manniche, Lise. "Symbolic Blindness." *Chronique d'Égypte* 53/105 (1978): 13-21.
- McDowell, Andrea G. *Village Life in Ancient Egypt: Laundry List and Love So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Miller, Robert L. "Palaeoepidemiology, Literacy, and Medical Tradition among Necropolis Workmen in New Kingdom Egypt." *Medical History* 35 (1991): 1-24.
- Noblecourt, Christiane Desroches. *Gifts from the Pharaohs: How Egyptian Civilization Shaped the Modern World*. Paris: Flammarion, 2007.
- Nunn, John F. *Ancient Egyptian Medicin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6.
- Ockinga, Boyo. "Piety." In *The Oxford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 Vol. 3. edited by Donald B. Redford *et al.* 44-4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Oppenheim, Leo.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Peden, Alexander J. *The Graffiti of Pharaoni Egypt: Scope and Roles of Informal Writings (c. 3100-332 B.C.)*. Probleme der Ägyptologie. Vol. 17. Leiden: Brill, 2001.
- Peet, T. Eric. "A Historical Document of Ramesside Age."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0, no. 2 (1924): 116-127.

- Pinch, Geraldine. *Votive Offerings to Hathor*. Oxford: Griffith Institute, Ashmolean Museum, 1993.
- Radford, Andrew.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Rainey Z. L., Anson F. *The El-Amarna Correspondence: A New Edition of the Cuneiform Letters from the Site of El-Amarna Based on Collations of All Extant Tablets*. Vol. 1. edited by William Schniedewind and Zipora Cochavi-Rainy. Handbuch der Orientalistik. Vol. 110. London-Boston: Brill, 2015.
- Ranke, Hermann. *Die ägyptischen Personennamen*. Vol. 1: Verzeichnis der Namen, Glückstadt: Verlag von J. J. Augustin, 1935.
- \_\_\_\_\_. *Die ägyptischen Personennamen*. Vol. 2: Einleitung. Form und Inhalt der Namen. Geschichte der Namen. Vergleiche mit andren Namen usw. Glückstadt: Verlag von J. J. Augustin, 1952.
- Reeves, Nicholas. *Akhenaten – Egypt's False Prophet*. London: Thames & Hudson, 2001.
- Robins, Gay. *The Art of Ancient Egyp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Saggs, Henry William Frederik. *The Encounter with the Divine in Mesopotamia and Israel*. Jordan Lectures in Comparative Religion 12. London: University of London, Athlone Press, 1978.
- Smith, David G. “Deep Solar Eclipses in Ancient Egypt – A New Interpretation of Some New Kingdom Texts.” Egyptomania: Egyptologists’ Electronic Forum’s Online Library, 2007, 1-23 (accessed on December 24, 2020), <http://www.egiptomania.com/EEF/EEFLibrary6.html>.
- Snell, Daniel C.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Schroeder, Charles A. “The Persea Tree of Egypt.” *California Avocado Society Yearbook* 61 (1977): 59-63.
- Shirun-Grumach, Irene. “Bedeutet ‘in der Hand des Gottes’ Gottesfurcht?” In *Studies in Egyptology Presented to Miriam Lichtheim*, Vol. 2. edited by Sarah Israelit-Groll, 836-852. Jerusalem: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1990.
- Simpson, William Kelly. “The Hymn to the Aten.” In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An Anthology of Stories, Instructions, Stelae, Autobiographies, and Poetry*, edited

- by William Kelly Simpson *et al.* 278-28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Tosi, Mario, Alessandro Roccati. *Stele e altre Epigrafi di Deir El Medina n. 50001-50262*. Turino: Edizioni d'Arte Fratelli Pozzo, 1972.
- Vernus, Pascal. *Affairs and Scandals in Ancient Egypt*. translated by David Lorton. Ithaca-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Watermann, Rembert. "Die altägyptischen Augenärzte." *Sudhoffs Archiv für Geschichte der Medizin und der Naturwissenschaften* 42, no. 2 (1958): 117-141.
- Watson Bruce. *Light: A Radiant History from Creation to the Quantum Age*. New York: Bloomsbury, 2016.
- Wente, Edward F. "The Blinding of Truth by Falsehood." In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An Anthology of Stories, Instructions, Stelae, Autobiographies, and Poetry*, edited by William Kelly Simpson, 104-10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Contendings of Horus and Seth." In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An Anthology of Stories, Instructions, Stelae, Autobiographies, and Poetry*, edited by William Kelly Simpson, 91-10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Wilkinson, Richard H. *The Complete Gods and Goddesses of Ancient Egypt*. New York: Thames & Hudson, 2003.
- Wilson, J. V. Kinnier, Edward H. Reynolds. "Translation and Analysis of a Cuneiform Text Forming Part of a Babylonian Treatise on Epilepsy." *Medical History* 34 (1990): 185-198.
- Ziegler, Christiane *et al.* *Queens of Egypt: From Hetepheres to Cleopatra*. Paris: Somogy Art Publisher, 2008.

Abstract

## The Possibility of Personal Piety in Ancient Egypt as Observed in Penitential Stelae of New Kingdom

Yoo, Sung Hwan (Seoul National Univ.)

At the high point of New Kingdom, the personal piety of ancient Egyptians can be defined as a spontaneous selection of a certain deity and direct devotion to him/her with no intervention of the state religion and temple cults performed by professional priests. The personal piety is formulated through the following idioms: (a) \**rdj DN m jb* "placing god into one's heart" and/or (b) \**jrr hr mw DN* "acting on god's water,"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ity and the individual as *b3k-nb* "servant-master" and/or *z3-jt(j)* "son-father." The religious feelings and faith of individuals are found, in most cases, in votive stelae built by the workers of Deir el-Medina during the late Eighteenth Dynasty and the Nineteenth Dynasty. The present article aims to take a close look at the particular ancient Egyptian religious sentiments revolving around penitence and hope for atonement by delving into the penitentiary texts and related images carved on those votive stelae. In those texts, the individuals beg the deities of their choice to be merciful and restore their sight; they promise to declare the deity's power to others as a pardonee. In this regard, the loss of sight can refer either to actual ophthalmological conditions or to pure religious experiences. The present article suggests that "seeing darkness," as an extremely intensive religious experience, can be as real as clinical blindness to those who had to go through the loss of sight in ancient Egypt.

Key Words: personal piety, Deir el-Medina, penitentiary stelae, Meretseger, loss of sight, ocular desire (Sehnsucht des Auges), Gottesferne, Gottverlassenheit, *Papyrus Ebers*